

석 사 학 위 논 문

즈지스와프 백진스키 (Zdzislaw Beksinski)

작품에 표현된 조형적 특성을 응용한
아트 메이크업 및 네일아트 디자인 제안 연구

2016년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분장예술전공

황령경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김남희

즈지스와프 벡진스키 (Zdzislaw Beksinski)
작품에 표현된 조형적 특성을 응용한
아트 메이크업 및 네일아트 디자인 제안 연구

A Study on the Proposed Art Make-up & Nail Art Design through
Analysis of Formative Features of Paintings
by Artist Zdzislaw Beksinski

2015년 월 일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분장예술전공

황령경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김남희

즈지스와프 벡진스키 (Zdzislaw Beksinski)
작품에 표현된 조형적 특성을 응용한
아트 메이크업 및 네일아트 디자인 제안 연구

A Study on the Proposed Art Make-up & Nail Art Design through
Analysis of Formative Features of Paintings
by Artist Zdzislaw Beksinski

위 논문을 예술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월 일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분장예술전공

황령경

황령경의 예술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5년 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국 문 초 록

즈지스와프 백진스키 (Zdzislaw Beksinski)

작품에 표현된 조형적 특성을 응용한

아트 메이크업 및 네일아트 디자인 제안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분장예술전공

황 령 경

예술과 문화 전반에 걸쳐 급속도로 성장하며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뷰티 산업은 시대의 구분 없이 그 가치가 인정되어 왔으며 인간의 미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성적이고 새로운 시도의 뷰티 관련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아트 메이크업과 네일아트는 조형 예술의 한 분야로 성장하며 퍼포먼스, 영상 등 여러 분야의 영역으로 확대되어 지고 있다.

최근 국내와 해외에서 많은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네일 아티스트들이 다양한 기법과 모티브를 이용하여 새로운 작품들을 제작하고 있으며 다양화되고 세분화 되어진 아트 작품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미술 사조와 함께 접하여 새롭고 예술적인 작품들을 연구하고 있으며 회화를 비롯하여 건축이나 조각, 영상, 광고 등의 분야와도 접목시켜 작품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본 논문은 초현실주의 작가이자 환시 미술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즈지스와프 백진스키(Zdzislaw Beksinski, 1929-2005)의 작품을 전반으로 하여 조형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백진스키는 반 추상적인 효과와 그로테스크한 작품의 특성을 느끼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작업을 통하여 많은 작품을 남겼다. 특정 예술 활동이 아닌 사진, 조각, 그래픽 등 여러 방면에서 활동하였으며 정해진 의미가 아닌 관람

자에게 의미 부여를 맡겨 여러 가지의 해석 결과를 제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즈지스와프 백진스키의 회화 작품을 중심으로 그의 생애와 작품 세계를 이론적으로 고찰한 후 백진스키의 회화에 나타난 형태적, 색채적 특성을 응용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아트 메이크업 5점과 네일아트 디자인 4점을 제안하였다. 연구 결과로는 즈지스와프 백진스키의 미적 특성을 모티브로 하여 작품이 가지고 있는 상징의미를 재해석함으로써 컴퓨터 그래픽을 함께 이용하여 해석된 아트 메이크업과 네일아트 디자인 작품이 완성되었다. 디자인을 제작함에 있어 실제 모델과 아트 마스크 위에 아트 메이크업을 하고 네일아트 팁 위에 다양한 방법의 요소들로 창의적인 작품을 연출하여 미적 가치를 더하였다. 이는 뷰티 아트 디자인 모색에 의한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작가의 회화 특성과 추구하고자 하는 의미를 보는 이들에게 이해시키고 단순한 회화적 미술 표현뿐만이 아닌 조형적인 특성을 극대화시켜 예술로서의 가치를 높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정해진 요소들의 범위를 벗어나 개성 있는 창작 연구가 수행되기를 바란다.

【주요어】 즈지스와프 백진스키, 아트 메이크업, 네일아트 디자인, NCS, 조형적 특성

목 차

I. 서 론	1
1.1 연구의 목적	1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II. 즈지스와프 백진스키의 생애와 작품세계	3
2.1 즈지스와프 백진스키의 생애	3
2.2 즈지스와프 백진스키의 시대적 배경	5
2.3 즈지스와프 백진스키의 작품세계	6
III. 즈지스와프 백진스키 작품의 조형적 특성 분석	11
3.1 즈지스와프 백진스키 작품의 연대별 특성	11
3.2 즈지스와프 백진스키 작품의 형태적 특성	23
3.3 즈지스와프 백진스키 작품의 색채적 특성	26
IV. 즈지스와프 백진스키 작품의 조형적 특성 분석을 통한 아트 메이크업 및 네일아트 디자인 제안	36
4.1 작품 제작 의도 및 방법	36
4.2 즈지스와프 백진스키의 작품 분석을 통한 디자인 제안	38

4.2.1 아트 메이크업 디자인 제안	38
4.2.2 네일 아트 디자인 제안	63
 V. 결 론	 79
 참고문헌	 82
 ABSTRACT	 85

표 목 차

<표 1> 즈지스와프 백진스키 작품의 연대별 특징 ①	20
<표 2> 즈지스와프 백진스키 작품의 연대별 특징 ②	21
<표 3> 즈지스와프 백진스키 작품의 연대별 특징 ③	22
<표 4> 즈지스와프 백진스키 작품의 형태적 특징 ①	24
<표 5> 즈지스와프 백진스키 작품의 형태적 특징 ②	25
<표 6> 즈지스와프 백진스키 회화 작품에 대한 배색 이미지 ①	29
<표 7> 즈지스와프 백진스키 회화 작품에 대한 배색 이미지 ②	30
<표 8> 즈지스와프 백진스키 회화 작품의 NCS 색채적 특성 분석 ① · 32	
<표 9> 즈지스와프 백진스키 회화 작품의 NCS 색채적 특성 분석 ② · 34	
<표 10> 연구 작품 분석 ①	38
<표 11> 디자인 작품 ① Re-born	40
<표 12> 연구 작품 분석 ②	43
<표 13> 디자인 작품 ② 올가미	40
<표 14> 연구 작품 분석 ③	48
<표 15> 디자인 작품 ③ 트와일라잇 (twilight)	50
<표 16> 연구 작품 분석 ④	53
<표 17> 디자인 작품 ④ 하이브리드 (hybird)	55
<표 18> 연구 작품 분석 ⑤	58
<표 19> 디자인 작품 ⑤ 블랙홀 (the black hole)	60
<표 20> 연구 작품 분석 ⑥	63
<표 21> 디자인 작품 ⑥ 해피 할로윈 (happy halloween)	65
<표 22> 연구 작품 분석 ⑦	67
<표 23> 디자인 작품 ⑦ 마스 (Mars)	69
<표 24> 연구 작품 분석 ⑧	71
<표 25> 디자인 작품 ⑧ 노을 지는 해변	73
<표 26> 연구 작품 분석 ⑨	75
<표 27> 디자인 작품 ⑨ 붉은 나비	77

그림 목 차

<그림 1> 즈지스와프 벡진스키(Zdzislaw Beksinski)	4
<그림 2> 포스터파 빅토르 구르카 ‘창문 없는 집 (1962)’	6
<그림 3> 포스터파 얀 므위도 제이에츠 ‘칠면조 (1960)’	6
<그림 4> DG-1986 (1950-60)	7
<그림 5> DG-2555 (1950-60)	7
<그림 6> DG-2764 (1959)	8
<그림 7> DG-2793 (1963)	8
<그림 8> DG-2642 (1996-1997)	10
<그림 9> DG-2546 (1950)	11
<그림 10> DG-2559 (1950-60)	12
<그림 11> DG-2561 (1950-60)	12
<그림 12> DG-1963 (1950-60)	12
<그림 13> DG-2824	13
<그림 14> DG-2846	13
<그림 15> DG-2798	13
<그림 16> DG-3163	14
<그림 17> DG-3165	14
<그림 18> DG-3427 (1968)	15
<그림 19> DG-2438 (1967)	15
<그림 20> DG-2443 (1978)	16
<그림 21> DG-2440 (1971)	16
<그림 22> DG-2298	17
<그림 23> DG-3397	17
<그림 24> DG-3398	17
<그림 25> DG-2501 (1976)	17
<그림 26> DG-2469 (1976)	17
<그림 27> DG-2261 (1984)	18

<그림 28> DG-2267 (1987)	18
<그림 29> DG-2252	18
<그림 30> DG-2250	18
<그림 31> DG-2283	18
<그림 32> DG-2585 (1996-1997)	19
<그림 33> DG-3064 (2001-2002)	19
<그림 34> DG-3040 (2001-2002)	19
<그림 35> 즈지스와프 백진스키 회화 작품에 대한 이미지 스케일	27
<그림 36> 즈지스와프 백진스키 회화 작품에 대한 배색 이미지 스케일	28
<그림 37> Re-born	41
<그림 38> Re-born 응용작	42
<그림 39> Re-born 응용작 세부사진 ①	42
<그림 40> Re-born 응용작 세부사진 ②	42
<그림 41> 올가미	46
<그림 42> 컴퓨터 그래픽 합성을 이용한 올가미 응용작	47
<그림 43> 트와일라잇 (twilight)	51
<그림 44> 트와일라잇 세부사진	52
<그림 45> 하이브리드 (hybrid)	56
<그림 46> 하이브리드 세부사진 ①	57
<그림 47> 하이브리드 세부사진 ②	57
<그림 48> 하이브리드 세부사진 ③	57
<그림 49> 블랙홀 (the black hole)	61
<그림 50> 컴퓨터 그래픽 합성을 이용한 블랙홀 응용작 ①	62
<그림 51> 컴퓨터 그래픽 합성을 이용한 블랙홀 응용작 ②	62
<그림 52> 해피 할로윈 (happy halloween)	66
<그림 53> 해피 할로윈 세부사진	66
<그림 54> 마스 (Mars)	70
<그림 55> 마스 세부사진	70
<그림 56> 노을 지는 해변	74

<그림 57> 노을 지는 해변 세부사진	74
<그림 58> 붉은 나비	78
<그림 59> 붉은 나비 세부사진	78

I. 서 론

1.1 연구의 목적

아트 메이크업과 네일아트는 내면의 생각을 신체 또는 조형물 위에 다양하게 표출 시킬 수 있는 예술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아트 메이크업은 일반 뷰티 메이크업과 달리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통하여 더 세밀하고 개성화된 예술 작품을 나타낼 수 있으며 다채로운 색감과 디자인을 통하여 기존의 틀을 벗어난 예술적 표현이 가능하다. 네일아트는 다양한 디자인과 개인의 개성을 돋보일 수 있는 아름다움의 표현 수단 중 하나이다. 단순히 기본 케어가 아닌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장식수단으로 손톱위에 표현함으로써 미용 산업 중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시각 중심의 창조적인 실험을 통하여 대중에게 미적 감동과 개성적인 아름다움을 전달하고 각 아티스트의 내면적 작품 세계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채로운 방법으로 표현되어진 아트 메이크업과 네일아트의 발전을 통해 시각 예술의 원동력이 되고 뷰티 산업의 발전을 토대로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네일 아티스트가 다양한 방면에서 성장할 수 있음을 필요로 하며 다양한 모티브와 재료를 제공하고 창조적인 디자인을 시도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형 예술 분야에서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는 아트 메이크업과 네일아트의 예술적 표현 기법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실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와 오브제를 통하여 작품의 방향성을 제시하였고 즈지스와프 백진스키 작품의 색채와 이미지 요소를 다양한 재료들과 결합시켜 재해석 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즈지스와프 백진스키의 작품은 다양한 예술 작품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의 작품은 죽음을 절망적이고 괴기스럽게 표현해내는 성질을 띠고 있으며 그러한 그의 생애와 작품의 성격을 살펴보고 그가 추구하는 작품 세계관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즈지스와프 백진스키와 아트 메이크업, 네일아트에 관한 문헌 관련 서적과 선행논문 및 문헌을 통하여 즈지스와프 백진스키의 생애와 시대적 배경을 고찰하고 그의 작품의 특성과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아트메이크업과 네일아트의 개념과 유형을 고찰하여 표현할 수 있는 재료들에 구체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즈지스와프 백진스키의 생애를 통하여 그 당시 작가의 사상과 시대적 배경을 통해 연대별, 형태적, 색채적 특성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회화에서 보여지는 즈지스와프 백진스키의 작품 속 조형미를 극대화 시켰으며 몽환적이고 강렬한 색의 특성을 띠는 즈지스와프 백진스키의 작품을 시각적 관점에서 재조명하여 NCS 색채 분석을 통한 아트 메이크업과 네일아트 디자인의 작품을 제안하고자 한다.

즈지스와프 백진스키의 작품을 모티브로 재조명시켜 아트 메이크업 5점, 네일아트 4점, 총 9점의 작품 디자인 연구를 제안하였으며 색채적, 형태적, 조형적 특성을 적용하여 일러스트 및 작품 디자인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즈지스와프 백진스키의 생애와 작품세계

2.1 즈지스와프 백진스키의 생애

즈지스와프 백진스키(Zdzislaw Beksinski, 1929-2005)는 1929년 2월 24일 폴란드 남동쪽의 위치한 작은 마을인 사노크(Sanok)에서 태어났다. 그는 2차 세계 대전이 발생한 당시 폴란드 문화가 추락하고 사람이 쉽게 죽는 모습을 보며 자랐다. 전쟁으로 인해 우울한 유년 시절을 보냈고 공포와 사후세계에 심취했다. 백진스키는 측량기사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1942년부터 1952년까지 기술 대학에서 학업을 마치기 위해 크라쿠프(Kraków)로 가 폴란드가 재건되던 여러 해 동안 건축학을 공부하였다. 그러나 적성에 맞지 않아 건축학을 그만두고 사진가로서의 예술적 활동을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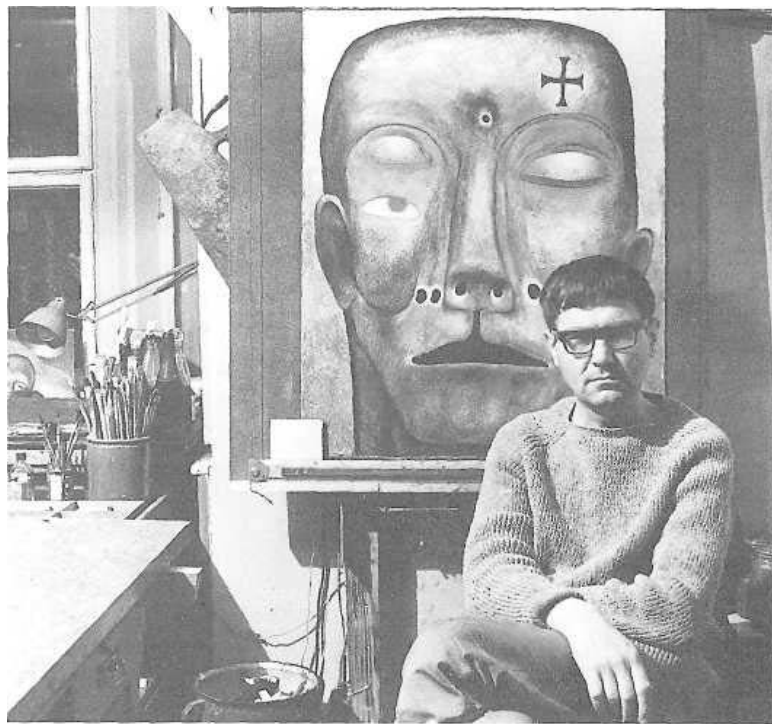
백진스키는 그의 건축학 학업이 끝난 이후에도 줄곧 사진을 찍었었다. 곧 그는 전문적인 환경에서 명성과 인정을 얻었다. 직후 폴란드 예술 사진작가 연합의 회원이 되었고 그의 몇몇 사진 작품들의 전시가 열렸으며 그 작품들은 수많은 논문들과 기사들을 탄생시켰다. (P. Domchowski, 1991)

그는 1960년대부터 사진 찍기와 함께 그림 그리는 일에도 종사하기 시작했다. 1958년 포즈난(Poznan)에서 그의 입체화법 작품들이 전시되었다. 1964년 바르샤바(Warsaw, 폴란드의 수도)에서 백진스키의 미술전시가 열렸다. 전시는 그를 예술적인 개성이 성숙한 작가로서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 전시가 많은 비판들을 야기했지만 진정한 열광을 자아내기도 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폴란드의 예술가, 디자이너 연합에 몇 년 동안이나 속해 있었지만 사실상 예술 애호가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

대중들에게 지금까지 인정받을 만큼 대중과 평론가의 관심을 끌게 한 것은 3년 후 1967년 폴란드의 수도에서 열린 전시회이다. 이 전시에는 5-60년대 초반에 그려진 연필 그림의 반추상적인 형태와는 다른 작품들을 전시했다. 이 전시를 기점으로 많은 카달로그(Catalog), 신문, 서적에 복사되어 백진스키의 상징성 있는 스타일이 구분되기 시작했다.

1965-66년 사이에 백진스키는 유채화를 배웠다. 그는 5년 동안의 공부 이후 1970년 바르샤바에서 열린 ‘동시대 미술 박물관’에 그의 유채화 작품들을 전시했다. 1970년대 내내 그는 그의 작품을 전시하며 매년 성과를 올렸다. 빠른 시간 내에 그는 폴란드 예술 시대의 선두적인 인물이 되었다.

1990년대 그의 아내인 조피아(Zofia)가 사망하였고 그의 아들인 토마슈(Tomasz)가 크리스마스이브에 자살 했는데 아들의 시신을 백진스키가 발견하게 된다. 우울증에 걸린 백진스키는 폴란드 최고의 화가로 뽑혔으나 수상을 거부하고 대중으로부터 철저히 자신을 고립시켰다. 자신의 작품 전시회에 참석을 하지 않게 되었고 이후 2005년 5월 21일 백진스키는 향년 75세의 나이로 자신의 자택에서 칼에 찔린 채 발견된다.



<그림 1> 즈지스와프 백진스키(Zdzislaw Beksinski)

Introduction to the book 'Beksinski'

2.2 즈지스와프 백진스키의 시대적 배경

1939년 9월 1일 독일의 폴란드 침공과 영국과 프랑스의 대독 선전 포고로 인하여 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였다. 1941년 태평양 전쟁을 거쳐 세계적인 규모로 확대되었는데 이 전쟁으로 인하여 수천만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고 세계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전 세계가 공황 상태에 빠졌다.

이 당시 폴란드는 1944년 8월에 나치 점령군에 의하여 수도 바르샤바의 18세기 역사 센터가 85% 이상이 파괴되었다. 주변 국가에 의해서 조국을 수차례 잃어야 했고 고난과 비극의 나라로 불리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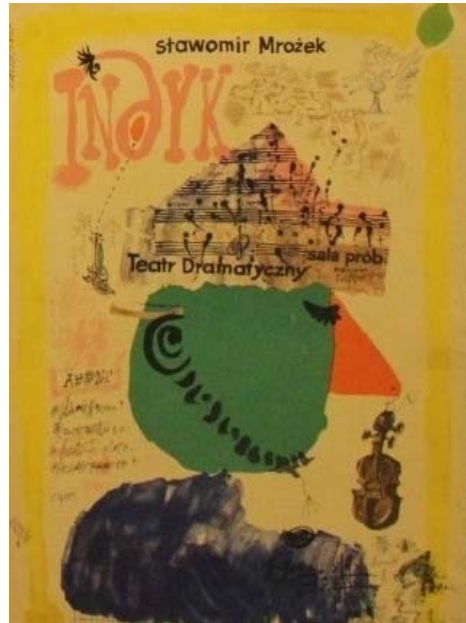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폴란드가 독립을 하게 되었고 당시 백진스키가 재학 중이던 대학 근처에는 아우슈비츠 포로수용소가 있었고 백진스키는 그의 조국인 폴란드에 대한 나치의 학살, 징병, 학대를 목격하였다. 아우슈비츠 포로수용소는 영화 안네의 일기, 씬들러 리스트의 배경이 된 곳이기도 하며 짧은 시간동안 이곳에서 숨진 인원은 약 150만 명 가까이에 이른다. 전쟁 패전이 임박하자 나치는 만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가스실과 각종 문서, 건물들을 소각하였다. (Zdzislaw Beksinskim, 1998)

2차 세계 대전이 종결된 후 1945년 폴란드는 독립하였다. 19세기 후반 폴란드에서 회화는 가장 대중적인 예술 장르로 자리 잡았다. 애국적인 주제를 가진 작품 이외에도 정물화, 초상화, 누드화와 같은 이국적이고 동양적인 주제의 작품들이 큰 유행이 되었다. 미술 전시가 다양해지면서 예술에 소비하는 계층이 한층 넓어졌고 미적 감각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회화들이 19세기 폴란드의 미술을 장식하였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아방가르드의 전통이 중단되었고 1950년대 중반 이후부터 정치적인 해방기를 거쳤다. 현대 예술의 국제적인 교류가 이어졌다.

20세기 후반부터는 ‘포스터 파’ 라고 불리는 디자이너들이 탄생하였다. 포스터를 광고나 전파 도구로 취급하지 않으며 간결하고 지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래픽 디자인을 끌어 올렸으며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쳐 20세기 후반 폴란드 예술을 대표하는 중요한 예술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았다.



<그림 2> 포스터와 빅토르 구르카
‘창문 없는 집 (1962)’
[http://navercast.naver.com/imageDetail.nhn?device=](http://navercast.naver.com/imageDetail.nhn?device=pc&serviceType=magazine)
[pc&serviceType=magazine](http://navercast.naver.com/imageDetail.nhn?device=pc&serviceType=magazine)



<그림 3> 포스터와 얀 프위도 제이에츠
‘칠면조 (1960)’
<http://yhson11.blog.me/220402045300>

2.3 즈지스와프 백진스키의 작품세계

건축과 조형예술, 사진 기술을 함께 전공하였던 즈지스와프 백진스키는 환시미술의 창시자라고 불리기도 했다. 그로테스크하고 미스터리한 독특한 화풍을 느끼게 하는 작품들을 만들어냈고 우울증에 걸린 화가로 유명세를 떨치기도 했다. 전쟁으로 인하여 암울한 나날을 보내야 했던 백진스키는 죽음과 공포, 사후세계, 영적인 세계의 심취하였다. 그는 상징주의를 좋아하지 않고 본인의 그림을 이해하려 들지 않았으며 그림에 대한 의미는 무의미하다 말하였다. 이미지에 대한 명백한 해답을 지니지 않은 그림을 그렸다.

백진스키는 그의 아버지의 강압으로 인하여 말은 직업이었지만 노련한 건축가였다. 학업을 끝낸 후 건축업체에서 건물 부지 담당자로 2년을 보내면서 조각 작품을 만들기도 하였는데 석고와 금속 및 와이어를 이용해 작품을 만

들었다. 그러나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자 건축업을 그만두고 사진 작업을 시작했다. 그는 심리적 상황에 대한 사진을 찍어냈다. 현실에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 사진을 찍으며 자신의 안목으로 만들어낸 변형된 세계를 표현하고자 했다. 그는 단순한 의심을 넘어서 진짜인 것과 자연적인 것들을 거부했다. 그의 사진 작품은 빛과 그림자를 주로 사용하였고 매우 울퉁불퉁한 질감과 주름을 이용하여 얼굴이나 얼굴이 없는 사람 등 여러 가지 테마를 가지고 사물과 풍경을 강조하여 자신의 미래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림 4> DG-1986 (1950-60)

http://beksinski.dmochowskigallery.net/galeria_karta.php?artist=34&picture=1986



<그림 5> DG-2555 (1950-60)

http://beksinski.dmochowskigallery.net/galeria_karta.php?artist=34&picture=25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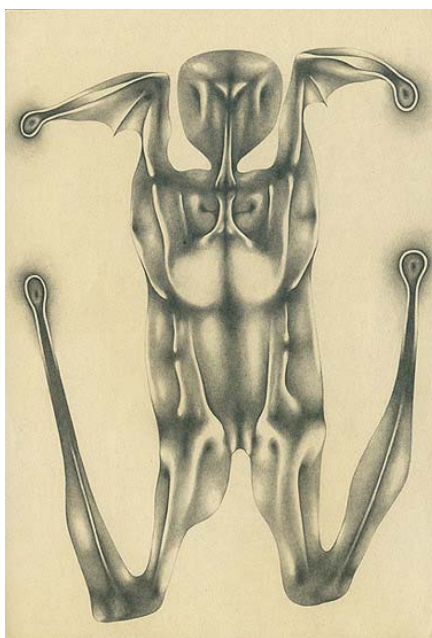
백진스키는 대다수의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히 예술가들이 편제하는 인위적인 느낌을 피했다. 이런 정서적인 특징은 그의 예술 가치들을 폭넓게 결정하도록 해주었다. 사진 작품들이 비평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후 드로잉 작업을 시작했다. 그 작품들은 반추상적인 조물을 연상시킬 만큼 왜곡된 인간형태의 요소들을 포함했다. 그 요소들은 50년대와 60년대의 전환기와 60년대 초기 작품들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초기작은 주로 볼펜과 잉크를 사용했다. <그림 6>, <그림 7> 과 같은 환상적 리얼리즘 시대에 그린 불안을 나타내는 이미지들을 그려냈다. 백진스키는 바로크 또는 고딕 방식이라며 상당히 그로테스크하고 에로틱하며 추상적인 미스터리한 그림을 그렸다. 극 사실적인 기법으로 죽음과 관련된 내용을 표현하고 특히 피부가 갈라지고 뼈와 살이 분리되어지는 인체의 파괴를 표현하려 했다. 그러한 작품을 그려내는 이유는 삶의 단조로움을 표현하기 위해서였다.



<그림 6> DG-2764 (1959)

http://beksinski.dmochowskigallery.net/galeria_karta.php?artist=55&picture=2764



<그림 7> DG-2793 (1963)

http://beksinski.dmochowskigallery.net/galeria_karta.php?artist=55&picture=2793

그는 폴란드를 비롯한 모든 유럽 국가에서 수많은 전시회를 열었다. 백진스키는 인물을 상당히 변형시켜 몸이 심하게 부패한 것처럼 보이고 살은 문드러지고 뼈가 피부를 뚫고 나온 것처럼 그림을 그렸고 동시에 자연 빛과 그림자가 없이 배경을 더욱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작품을 그렸다. 백진스키는 그의 그림에 현실적인 모든 모습들을 제거하였다. 전체적으로 얼굴, 눈, 코, 어깨에 달린 세부적인 것들은 인간을 닮았지만 새, 박쥐, 야행성 동물들, 유령, 뱀과 이어를 닮은 생명체들이 사는 세상의 느낌을 주었다. 이러한 모습들에 나타난 인간들의 공격성, 고통, 성적 행위 등이 시체와 부패하고 버려짐과 같은 부가 요소와의 접촉으로 추가적인 관점을 자아낸다. 무의식적으로 삶의 가장 간절한 정의인 출생이 즉 죽음의 시작을 나타내는 것이다.

1973년부터 그는 오직 그림에만 자신을 바쳤다. 그는 평소에 유채화법을 사용하였고 아크릴의 이점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다. 그의 작품은 항상 현실과 같은 관계를 간직하고 있다. 그것들은 현실에 아주 가깝지만 절대 직설적인 반영으로 변하지는 않는다. 본질에서 가져온 것 같은 인상을 주는 요소들을 제외하고 순전히 환상적인 특징들을 나타내는 다른 요소들이 있다. 그의 작품들은 다가오는 죽음이나 극적인 상황들, 파괴에 가까운 상황의 경묘함의 분위기를 담고 있다. 조롱, 그로테스크함, 풍자의 가면 뒤에 그의 사고방식을 숨겼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백진스키는 현저하게 명쾌한 인간이었다. 하루 중 10시간을 넘게 교향곡을 들으며 작업을 하였고 음악이 없으면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새로운 매체인 컴퓨터 그래픽 합성을 이용한 작업을 시작하였다.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셀 수 없이 많은 환상적인 작품을 선보였다. 그러나 초기 볼펜과 잉크를 통한 작품들이 그래픽으로 작업한 작품으로 변하자 손으로 직접 그릴 때의 시각적 상실과 몽환적 감각이 많이 사라져 버린 느낌을 주기 시작했다.

백진스키는 초현실주의 경향에 속하는데 그는 자신의 그림을 초현실주의라고 칭하는 것을 매우 싫어했다. 유년시절의 기억과 감정들이 무의식중에 들어 있을 수는 있지만 자신은 그의 그림은 초현실주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꿈을 사진으로 찍는 것처럼 표현해내고자 했고 그림에 의미를 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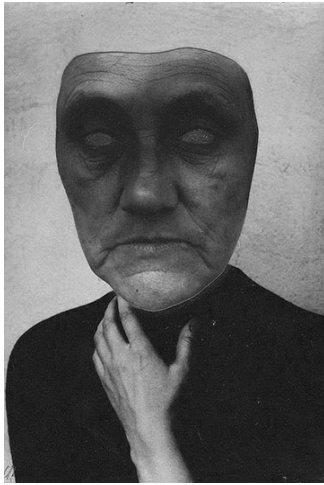
것을 피하기 위해 작품명을 짓지 않았다. 백진스키는 자신의 작품이 우울증을 나타낸 그림으로 해석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고 작품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피하며 그가 추구하거나 자신의 작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라는 사람들을 꺼려했다. 훗날 그는 그의 작품이 너무 개인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기를 바라여 작품을 불태워버렸다.



<그림 8> DG-2642 (1996-1997)

computer graphic, computer photomont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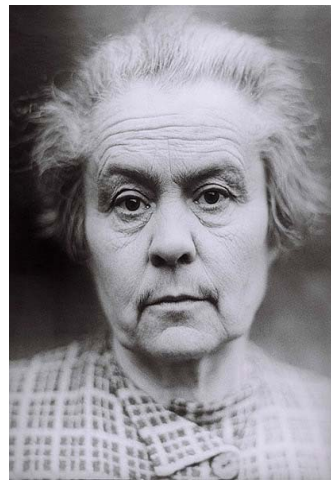
http://beksinski.dmochochowskigallery.net/galeria_karta.php?artist=54&picture=2642



<그림 10> DG-2559 (1950-60)
<http://www.dmochowskigallery.net/>



<그림 11> DG-2561 (1950-60)
<http://www.dmochowskigallery.net/>



<그림 12> DG-1963 (1950-60)
<http://www.dmochowskigallery.net/>

3.1.2 반 추상적 드로잉 (Half-abstract drawings, 1950년)

백진스키는 그의 사진 작업과 함께 드로잉에도 종사하기 시작했다. 반 추상적인 구조물을 연상시키는 왜곡된 인간형태의 요소들을 그려냈다. 구상적인 효과를 주는 검정색 볼펜과 잉크를 이용하여 그림을 그렸고 파스텔을 이용하기도 했다. 불안과 심리적 압박, 초조함을 담아냈고 대중들로 하여금 서술적 특징을 느끼게 해주었다. 비현실적으로 인간의 형태를 표현하고 부분적인 노출과 피부와 동일한 수준으로 그려진 정맥과 혈관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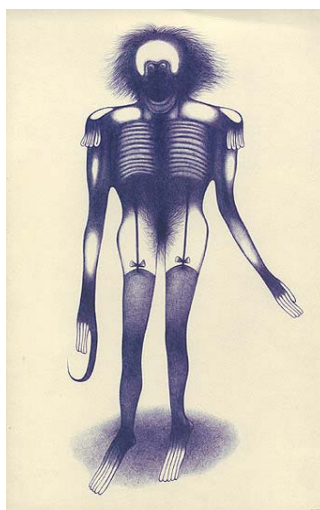
즈지스와프 백진스키의 반 추상적인 주요 작품에는 <그림 13, 14, 15>가 있다. <그림 13>은 드로잉 잉크를 이용하여 검정 색상만 이용하여 인간의 옆 모습을 표현했다. 특유의 그로테스크함을 살리기 위해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으나 여러 개의 눈을 그려 기하학적이고 괴기스러움을 연출했고 뼈의 구조를 함께 그려 넣음으로써 인간이지만 또 다른 생명체임을 나타내었다. <그림 14>는 인간이면서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눈, 코, 입의 형태가 없고 지나치게 긴 팔과 한 쪽 손은 날카로운 고리가 달려있어 마치 괴물과 흡사한 모습이다. 볼펜을 이용하여 그림을 그렸고 우리가 꿈속에서 보기엔 자연스러운

세계지만 왜곡된 세계의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그림 15>는 볼펜을 이용한 그림으로 인간의 몸을 하고 있지만 얼굴은 새의 형상을 하고 있다. 해골 형상과도 비슷하며 부리와 뺨을 표현하였고 상체는 머리카락이 길게 늘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며 무성한 털로 덮인 날개처럼 연출되어 보인다. 각각의 모습에서 제대로 된 형태를 취하지만 눈대중만으로도 엄연히 현실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3> DG-2824

<http://www.dmochowskigallery.net/>



<그림 14> DG-2846

<http://www.dmochowskigallery.net/>



<그림 15> DG-2798

<http://www.dmochowskigallery.net/>

3.1.3 조각 (Sculptures and relief works, 1960년)

백진스키는 순수하게 추상적인 작품들을 플라스틱과 철사, 철판, 조각, 석고에 새겼다. 그 시기에 요구되었던 그의 내적 성향에 따라서 다른 형태와 재료들을 가지고 조각 작품을 시도했다. 철판, 철사, 석고 등을 이용한 작품이 비록 추상적인 형태이지만 그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유로운 표현주의자로 남고자 했다. 기이학적인 추상을 참지 못했고 그는 플라스틱 물체의 기법, 농도, 복잡성에 관하여 항상 표현을 나타냈고 큰 경이를 이뤄냈다. 이용된 철판과 철사는 산성처리 되었고 엄청난 밀도가 될 때까지 버리고 달구어졌다. 그의

작품들이 미신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얇은 돈음 새김 법칙에 따라 다양한 효과를 얻어냈고 그 시기에 그의 작품들이 대중들로 하여금 서술적 특징을 느끼게 해줬다. (P. Domchowski, 1991)



<그림 16> DG-3163

http://beksinski.dmochowskigallery.net/galeria_karta.php?artist=37&picture=3163



<그림 17> DG-3165

http://beksinski.dmochowskigallery.net/galeria_karta.php?artist=37&picture=3165

3.1.4 회화 (Painting, 1960-1990년)

백진스키는 스토리상의 간섭이나 참견 없이 단지 그림을 그렸고 상징주의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도 자신의 그림을 잘 모른다고 말하였다. 1960년대 사회적 현실주의의 교리에 지배당한 예술이 기만과 질서의 유대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키고 있었다. 1960년대 표현주의는 확실히 예술계 전반에 만연해 있었고 결과적으로 젊은 화가들은 표현주의자들에게 색상의 풍부함과 붓질로 돋보이는 그림을 권했다. 시대에 감명 받은 백진스키는 한때 이러한 변화의 열렬한 대변인이 되었었다. 이러한 작품은 50년대와 60년대 전환기, 60년대 그의 초기 작품들에 가장 두드러진다. <그림 18>은 1960년대 그림으로 반추상적인 형태이면서 특유의 인간 파괴에 관한 극사실적인 기법으로 기괴하면서도 난해하게 인간을 표현했다. 거미나 뿔 달린 괴물을 연상시키는 그로테스크한 느낌을 연출한다. <그림 19>는 1967년에 그려졌으며 백발의 노인을 연상시키는 피부의 늘어짐과 주름, 혈관이 자세하게 묘사되었다.



<그림 18> DG-3427 (1968)
http://beksinski.dmochowskigallery.net/galeria_karta.php?artist=52&picture=3427



<그림 19> DG-2438 (1967)
http://beksinski.dmochowskigallery.net/galeria_karta.php?artist=52&picture=2438

1970년대에 들어서 더욱 이미지가 확고해졌는데 작품이 좀 더 위험하고 성적으로 평가되었다. 이것을 ‘에로티시즘(Eroticism)’이라 하였다. 인체의 특별함을 다룸으로써 지나치게 단정적인 정의를 막았다. 남자와 여자의 나체를 비현실적으로 표현하고 몸이 심하게 부패된 것처럼 그렸다. 살은 문드러지고 피부를 뚫고 나온 뼈가 살과 분리 되고 피부는 저절로 벗겨져버린 것 같다. 하지만 백진스키는 이런 효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피부를 거미줄처럼 그리거나 다른 물체로 살아있어 보이게 했다. 피부 면적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맥과 혈관을 그렸고 비현실적이지만 인간의 틀을 벗어나지는 않았다. 에로티시즘은 그에게 숨겨진 꿈을 표현하고 50년대 폴란드에 청교도주의적인 도덕성을 불러일으킨 모든 남성들의 심리적 장애물에 낙인을 찍는 특별한 기회를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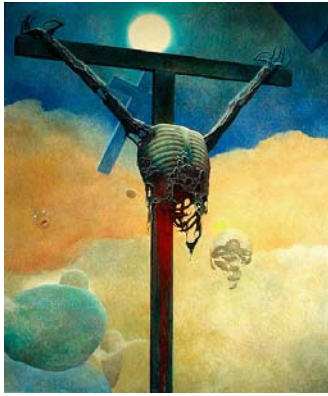
평평하고 매끈한 표면이 그를 지겹게 만들었다. 그는 그것을 작은 혈관이나 문구, 그림을 이용한 세부적인 것들과 그 중 하나인 피부 위장 중 하나로 작품을 채워야겠다는 강력한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그림 25>, <그림 26>과 같이 인물을 제외한 풍경화를 남기기도 했다. 겉보기엔 아름다움만을 나타내는 풍경화 같지만 세부적인 요소들이 인간의 잔해들로 연출되었다. 인물을 표현하지 않아도 풍경화에서도 자신의 상징을 벗어나지 않았다.



<그림 20> DG-2443 (1978)
http://beksinski.dmochowskigallery.net/galeria_karta.php?artist=52&picture=2443



<그림 21> DG-2440 (1971)
http://beksinski.dmochowskigallery.net/galeria_karta.php?artist=52&picture=24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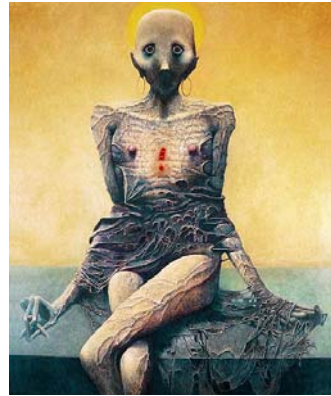
<그림 22> DG-2298

<http://www.dmochowskigallery.net/>



<그림 23> DG-3397

<http://www.dmochowskigallery.net/>



<그림 24> DG-3398

<http://www.dmochowskigallery.net/>



<그림 25> DG-2501 (19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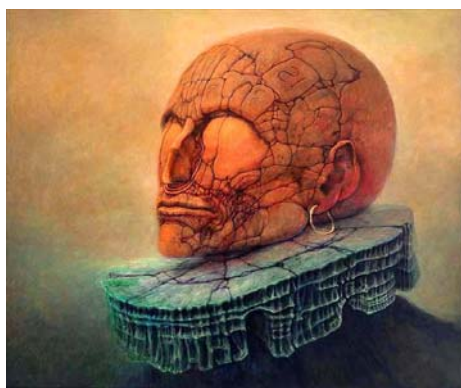
http://beksinski.dmochowskigallery.net/galeria_karta.php?artist=52&picture=2501



<그림 26> DG-2469 (1976)

http://beksinski.dmochowskigallery.net/galeria_karta.php?artist=52&picture=2469

1980년대에는 인간의 얼굴을 부각시키는 초상화를 연출했다. 80년대에는 <그림 27>, <그림 28>처럼 6-70년대의 비비드(Vivid)한 작품의 색상보다 색감 표현이 열어졌고 몽환적인 분위기의 배경과 얼굴을 그려냈다. 역시나 피부를 거미줄처럼 연출했다. 90년대는 백진스키에게 시련의 시대였다. 그의 가족이 사망했고 그로 인해 <그림 29>, <그림 30>, <그림 31>처럼 사신이나 저승사자를 연상시키는 작품이 많았다. 무자비하고 잔혹한 파괴의 현장에서 느끼는 허탈함과 공포감, 모든 것이 사멸하고 난 자리에서 정적이 교차하는 그의 그림에는 인간뿐만이 아니라 무생물조차도 기괴한 모습으로 의인화 되었다.



<그림 27> DG-2261 (1984)

http://beksinski.dmochowskigallery.net/galeria_karta.php?artist=52&picture=2261



<그림 28> DG-2267 (1987)

http://beksinski.dmochowskigallery.net/galeria_karta.php?artist=52&picture=2267



<그림 29> DG-2252

<http://www.dmochowskigallery.net/>



<그림 30> DG-2250

<http://www.dmochowskigallery.net/>



<그림 31> DG-2283

<http://www.dmochowskigallery.net/>

3.1.5 컴퓨터 그래픽 (Computer graphic, 1990-2000년)

백진스키는 1990년대 후반부터 자신이 사망 직전까지 컴퓨터 그래픽 합성을 이용하여 작업을 시작했다. 손으로 그려진 작품이 세련되고 환상적으로 변했다. 더 정교한 기법들이 작품에 연출되었고 볼펜으로 그려진 여러 겹의 스케치 느낌보다는 정확하고 명확한 선의 구분이 생겼다. 우울하고 예리한 칼로 베인 것 같은 느낌을 주었으나 그로테스크하고 몽환적인 느낌은 그래픽 작업에서는 많이 부족하다는 평을 받았다.



<그림 32> DG-2585 (1996-1997)

http://beksinski.dmochowiskigallery.net/galeria_karta.php?artist=37&picture=2585



<그림 33> DG-3064 (2001-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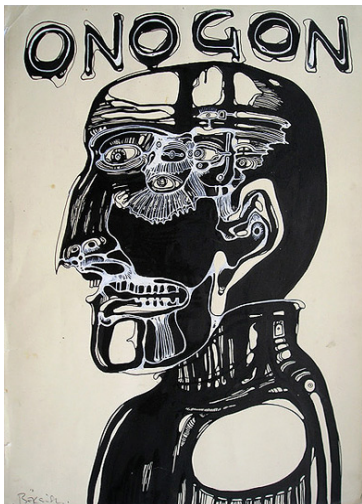
http://beksinski.dmochowiskigallery.net/galeria_karta.php?artist=52&picture=3064



<그림 34> DG-3040 (2001-2002)

http://beksinski.dmochowiskigallery.net/galeria_karta.php?artist=52&picture=3040

<표 1> 즈지스와프 백진스키 작품의 연대별 특징 ①

본 연구자가 작성한 연대별 특징		
포토그래퍼 photograph (1950년)		- 현실을 변형 하려하는 경향이 있었음. - 주로 사람의 얼굴을 확대하거나 나체 사진을 찍음. - 피부의 주름과 거친 질감의 사진을 이용해 심리적 상황을 나타냄.
반 추상적 드로잉 Half-abstract drawings (1950년)		- 반 추상적인 구조물을 연상시키는 왜곡된 인간형태의 요소들을 그려냄. - 불안과 심리적 압박, 초조함을 담아냈고 대중들로 하여금 서술적 특징을 느끼게 함.

<표 2> 즈지스와프 백진스키 작품의 연대별 특징 ②

본 연구자가 작성한 연대별 특징		
조각 Sculptures and relief works (1960년)		- 순수하게 추상적인 작품들을 플라스틱과 철사, 철판, 조각, 석고에 새김. - 그 시기에 요구되었던 그의 내적 성향에 따라서 다른 형태와 재료들을 가지고 조각 작품을 시도함.
회화 Painting (1960년)		- 반추상적인 형태. - 특유의 인간 파괴에 관한 극사실적인 기법으로 기괴하면서도 난해하게 인간을 표현함.
회화 Painting (1970년)		- 작품이 좀 더 위험하고 성적으로 평가됨. - 에로티시즘(Eroticism)이라 하며 인체의 특별함을 다룸. - 남자와 여자의 나체를 비현실적으로 표현하고 몸이 심하게 부패된 것처럼 그림.

<표 3> 즈지스와프 백진스키 작품의 연대별 특징 ③

본 연구자가 작성한 연대별 특징		
회화 Painting (1980년)		- 인간의 얼굴을 부각시키는 초상화를 연출. - 80년대에는 6-70년대의 비비드(Vivid)한 작품의 색상보다 색감 표현이 열어짐. - 몽환적인 분위기의 배경과 얼굴을 그려냄.
회화 Painting (1990년)		-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사신이나 저승사자를 연상시키는 작품을 그려냄.
컴퓨터 그래픽 Computer graphic (1990-2000년)		- 우울하고 예리한 칼로 베인 것 같은 느낌을 줌. - 그로테스크하고 몽환적인 느낌은 그래픽 작업에서는 많이 부족하다는 평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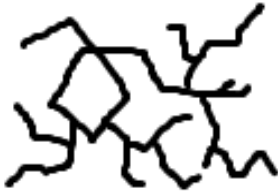
3.2 즈지스와프 백진스키 작품의 형태적 특성

회화 작품에 있어서 형태는 이미지 전달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표현 방법이며 창의적 시도를 할 때 가장 먼저 관찰하거나 표현할 수 있는 조형의 요소이다. 시각적으로 대상을 관찰할 때 모든 사물은 각각 다른 형을 지니고 있고 면과 함께 입체적인 연출과 공간을 표현할 수 있다.

즈지스와프 백진스키의 작품은 온통 죽음으로 이어지는 그로테스크한 부조리와 우울을 담고 있다. 그의 작품은 대부분이 삶의 단조로움을 표현하고자 했으며 그가 나타내었던 에로틱한 상상력은 환시 미술이라는 독특한 장르를 구축시켰다.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묘한 매력을 가지고 대중들이 빠져들게 되는 환시 미술은 즈지스와프 백진스키의 그림으로 대표되며 여러 밀도가 있는 입체 작업을 통하여 이미지를 창조시킨다. 그의 회화 형태는 폭격당한 도시들의 사진과 죽음과 파괴의 풍경화에 관하여 작품을 그렸고 심하게 부패하고 기이하게 변형된 인간의 모습을 연출하고자 했다. 주로 사람의 얼굴이 자주 등장하는데 형태를 일그러뜨리기 위해 거미줄처럼 선이 뒤엉켜있고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날카로운 소재의 형태들을 살펴볼 수 있다. 윤곽선을 가느다랗고 얇은 선과 잔상이 남아있는 효과와 사람의 머리카락을 연상시키는 작품 속 요소들이 있으며 갈라지고 파괴되며 혹은 흐르는 물과 같은 부드러운 선을 강조하기도 했다. 각이 잡혀있는 도형의 면보다는 일정함이 없고 제각기 크기와 형태가 다른 틀을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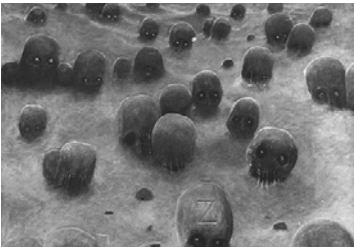
즈지스와프 백진스키의 회화에 나타난 형태적 특성을 크게 선과 면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아트 메이크업과 네일아트 디자인의 모티브가 될 즈지스와프 백진스키의 회화 작품을 가지고 형태를 분류한 것은 다음과 같다.

<표 4> 즈지스와프 백진스키 작품의 형태적 특징 ①

선의 형태 분석 일러스트	
모티브	선 일러스트
	
	
	
	

<본 연구자가 작성함>

<표 5> 즈지스와프 백진스키 작품의 형태적 특징 ②

면의 형태 분석 일러스트	
모티브	면 일러스트
	
	
	
	

< 본 연구자가 작성함 >

3.3 즈지스와프 백진스키 작품의 색채적 특성

3.3.1 색채(色彩)

인간은 예로부터 색(色)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다. 색채에는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 색에 의해서 혈액순환, 신경, 근육의 긴장에도 영향을 받는다. 색상은 사람들의 시선을 가장 오래 머물게 하며 본능적으로 이끌리도록 도와준다. 생활 속부터 패션, 디자인, 메이크업, 네일아트까지 그 대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색상의 특징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색은 빛의 반사와 흡수에 의한 물체의 색이 사람의 눈을 통해 대뇌에 인식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색은 빨강, 노랑, 파랑 등의 색을 구분하는 색상(色相), 밝고 어두운 정도를 말하는 명도(明度) 그리고 맑고 탁한 정도를 말하는 채도(彩度),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색의 3 속성으로 다양한 색이 분류되고, 이러한 색을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체계화한 것이 색채계(色彩計)이다. (박지원,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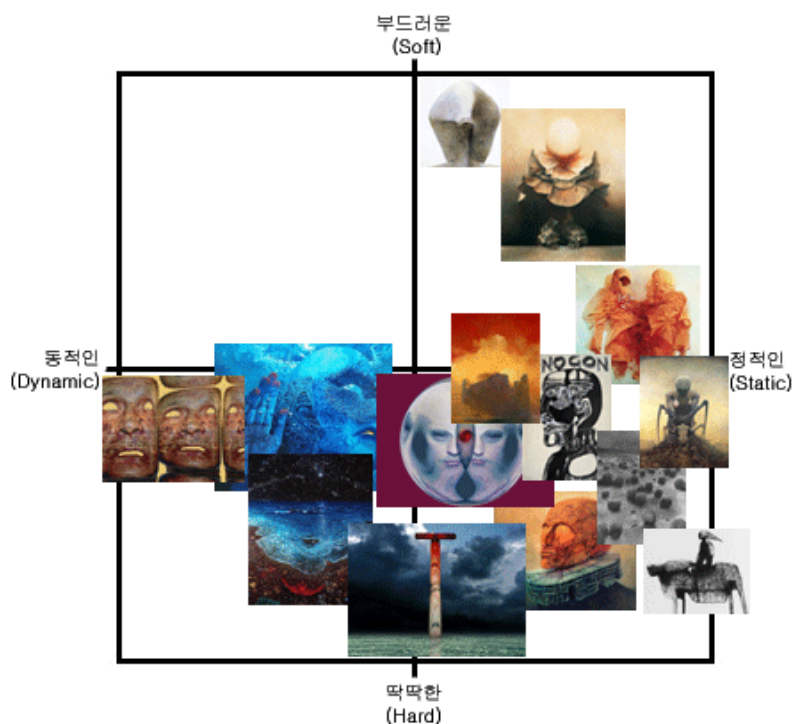
우리가 사용되는 ‘색’과 ‘색채’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 특히 디자인에 있어서 색채감성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디자인에 있어서 색채를 이야기할 때 감성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색채는 디자인 작업에 있어서 다른 구조적인 요소들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점은 색채를 통해 각각의 디자인 작업 성격, 의도에 맞는 특정한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창조해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전정민, 2004)

본 연구에서는 즈지스와프 백진스키 회화에 대한 색채적 특성을 NCS (Natural Color System) 표색계와 이미지 스케일을 통하여 색채 분석을 하였다.

3.3.2 이미지 스케일을 통한 색채적 특성 분석

이미지 스케일은 감각적으로 색을 판단하기 보다는 객관적으로 전개시키기 위해 개발된 체계이다. 색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이미지를 바탕으로 하여 대중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정리한 대표적 사례가 바로 이미지 스케일이다. 감성 배색이나 색채 계획 디자인을 가장 기본적인 지식으로 하며 색에 대한 객관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주제의 특성에 맞게 이미지 공간을 제작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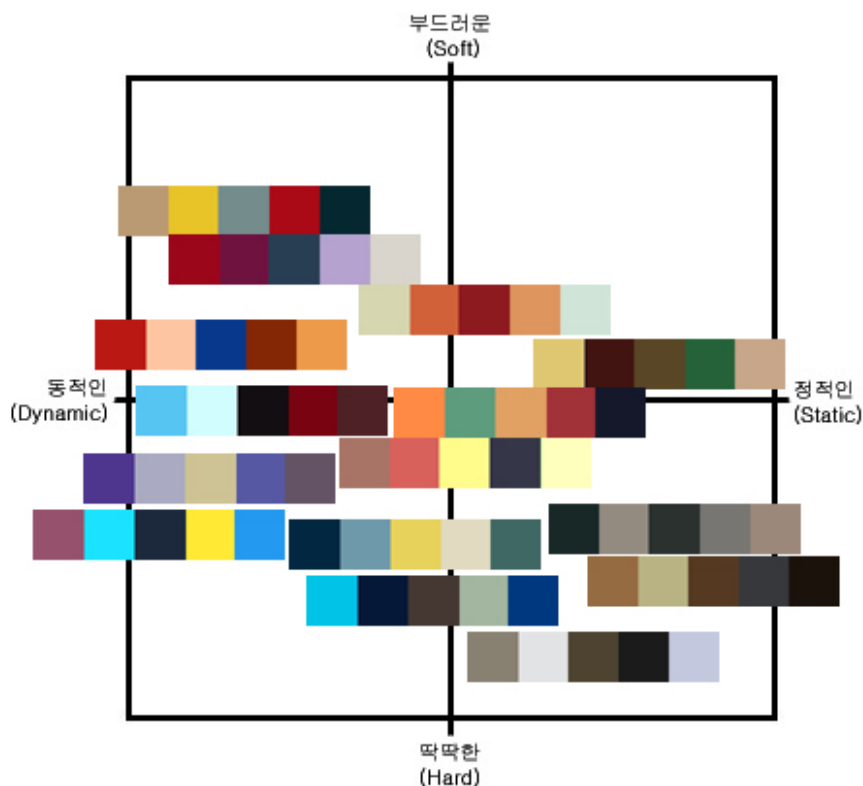
이미지 스케일은 크게 단색과 배색 이미지 스케일로 나뉘며 단색이 가지는 이미지로써 분석하고 여러 가지 색이 혼합되어 사용되는 배색 이미지를 분석할 경우에 쓰인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즈지스와프 백진스키 회화 작품에 대하여 이미지 스케일을 분석하였다.



<그림 35> 즈지스와프 백진스키 회화 작품에 대한 이미지 스케일
(연구자가 연구 과정에서 직접 작성한
'즈지스와프 백진스키 회화 작품의 이미지 스케일')

즈지스와프 백진스키의 회화 작품 이미지 스케일에 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35>를 분석해 볼 때, 색채 특성은 다양하게 쓰이며 주로 정적이고 딱딱한 이미지의 작품들이 대다수였다. 이미지 스케일에 나와 있는 작품들 이외에도 탁하고 정적이며 몽환적인 분위기의 작품들을 볼 수 있었고 백진스키 회화만의 색감이 드러나 있다. 탁하고 채도가 약한 작품들과 반면에 비비드한 색상을 이용한 작품들은 딱딱하면서도 동적인 이미지에 포함이 되었으며 부드럽고 동적인 이미지거나 즐겁고 여성적인 이미지에는 그의 작품이 포함되지 않았다.

다음의 이미지 스케일은 즈지스와프 백진스키의 회화 작품 이미지 스케일을 가지고 배색 이미지 스케일로 재구성한 결과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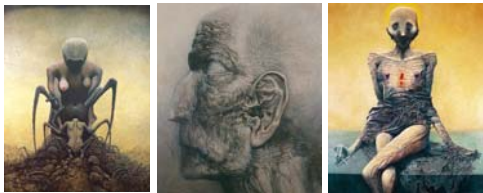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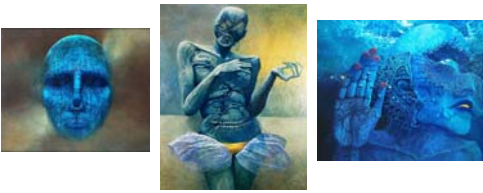
<그림 36> 즈지스와프 백진스키 회화 작품에 대한 배색 이미지 스케일
(연구자가 연구 과정에서 직접 작성한
'즈지스와프 백진스키 회화 작품에 대한 배색 이미지 스케일')

<그림 36>에 있던 즈지스와프 백진스키의 회화 작품들은 단조롭게 한 계열 색상 배색이 아닌 여러 계열의 색상들이 그라데이션을 이루었기 때문에 즈지스와프 백진스키의 회화 작품에서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5가지 색상을 배색하였고 <그림 35>와는 달리 부드럽고 정적인 이미지의 배색 이미지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배색을 통하여 작품을 보았을 때 <그림 35>에서는 부드럽고 동적인 이미지에 해당이 되지 않았다면 <그림 36>에서는 부드럽고 동적이며 경쾌한 배색 이미지가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3.3.3 즈지스와프 백진스키 회화 작품 배색 이미지 분석

다음과 같이 즈지스와프 백진스키의 회화 작품을 이미지 스케일로 나누고 육안 측색에 따라서 그에 따른 배색 이미지 스케일도 지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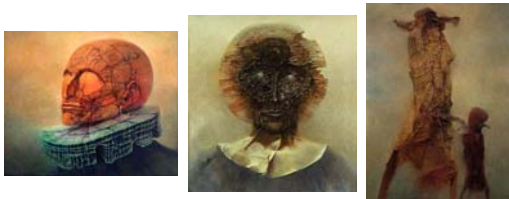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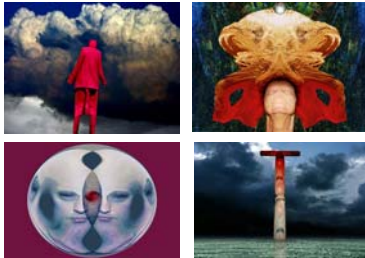
<표 6> 즈지스와프 백진스키 회화 작품에 대한 배색 이미지 ①

배색	1960년대 회화 작품
	
	1970년대 회화 작품
	

연구자가 본 연구 과정에서 작성한
'즈지스와프 백진스키 회화 작품에 대한 배색 이미지'

1960년대와 1970년대로 분류한 <표 6>을 보면 1960년대에는 채도가 탁하고 어두운 무채색 계열과 브라운 계열 톤의 색감으로 이루어진 작품을 찾아볼 수 있었으며 1970년대 작품에서는 포인트가 되는 색상들이 있어 단조로움을 피하고 좀 더 생생하고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표 7> 즈지스와프 백진스키 회화 작품에 대한 배색 이미지 ②

배색	1980년대 회화 작품
	
	1990년대 회화 작품
	

연구자가 본 연구 과정에서 작성한
'즈지스와프 백진스키 회화작품에 대한 배색 이미지'

<표 7>은 1980년대와 1990년대의 페인팅 기법에 들어간 색상 배색에 대해 나열하였다. 1960년대와는 확연히 다른 차이를 나타내었고 파스텔 톤의 색상들이 함께 배색되었으며 90년대에 들어서는 무채색 계열의 채도가 낮은 색상보다 강렬하고 시각적으로 와 닿는 색상들을 주로 이용하였다.

회화 작품에서 볼 수 있듯이 즈지스와프 백진스키의 특유의 색상 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도 다르게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1960년대 페인팅 색상이 공포감을 조성하고 몽환적이며 우울함을 담아냈다면 시대가 변할수록

기법이 더 세밀하고 여러 가지 색상을 함께 어울려 사용하였다. 시대가 바뀔수록 색상의 선명함이 더 살아났고 어둡고 암울하던 분위기가 생기 있고 역동적으로 보이는 배색을 찾아볼 수 있다.

즈지스와프 백진스키의 많은 작품들 중 연대별로 나누어진 대표작을 몇 가지만 선정하여 예를 들었으며 동일한 톤의 계열 배색과 명확히 다른 톤의 배색을 알아보기 위해 작품의 분위기를 결정할 수 있는 5가지 색상을 기준으로 배색하였다. 배색 결과 각 시대의 분위기를 따라 작품의 흐름이 변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표현 기법에 따라 작품의 톤이 변화하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미지 스케일과 배색 이미지 스케일에서 통계된 대표적 형용사로 정의했을 때 즈지스와프 백진스키의 회화 작품은 ‘탁한’, ‘우울한’, ‘나이든’, ‘고상한’, ‘무거운’, ‘중후한’, ‘은은한’, ‘깊은’, ‘거친’, ‘와일드한’, ‘차가운’, ‘인공적인’, ‘도시적인’, ‘하이테크한’, ‘환상적인’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3.3.4 NCS(Natural Color System) 표색계를 통한 색채적 특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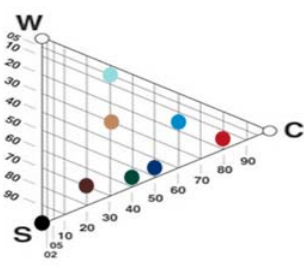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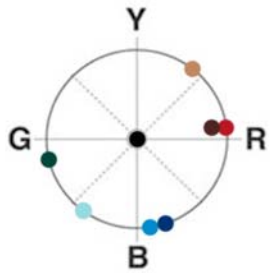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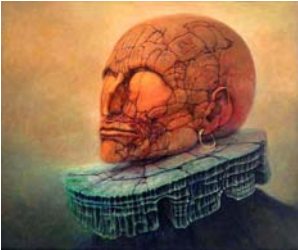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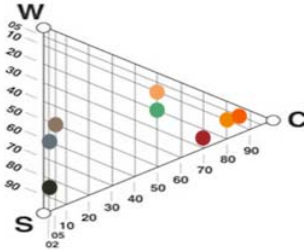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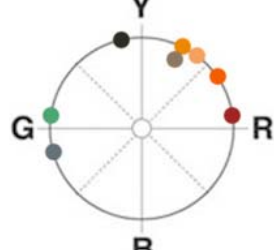
NCS(Natural Color System)는 1972년에 스웨덴의 색채 연구소에서 발표한 표색계를 말하며 노르웨이, 스웨덴, 스페인의 국가 표준색을 제정하는데 기여하였고 영국 런던에 있는 지하철 노선에 적용이 되는 등,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다.

기존 색체계가 색채계획에서 실용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렵다는 한계성을 보이면서 그 뒤를 이어 기존 색체계를 보완한 자연색체계(NCS)가 개발되었다. 자연색체계는 1964년부터 정부의 연구기금에 의해 스웨덴 색채 연구소가 추진되어진 결과 인간과 빛, 환경의 관계를 고려한 과학적인 색체계이다. 독일 학자인 헤링(Ewald Hering)의 반대색설에 근거한 자연 색체계는 1972년 스웨덴 표준협회(SIS)에서 채택되어졌고 1979년 8월에 스웨덴에서 ‘SIS-NCS 색채도해’를 발간하여 공인을 받음으로써 지금의 자연색체계(NCS)가 나오게 된 것이다. (정미란, 1996)

따라서 본 연구자는 아트 메이크업과 네일아트 디자인을 함에 있어서 즈지스와프 백진스키 회화 작품의 모티브에 관하여 색을 육안으로 측색하고 가장

비슷한 근사치의 NCS 색 값을 통하여 색채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표 8>과 <표 9>는 본 연구자가 즈지스와프 백진스키 회화 작품 중 채택한 작품을 NCS 표색계를 이용하여 육안으로 측색하여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8> 즈지스와프 백진스키 회화 작품의 NCS 색채적 특성 분석 ①

회화 작품	NCS 뉘앙스 분포도	NCS 색상 분포도
		
		

<표 8>의 첫 번째 그림인 ‘DG-2501 (1976)’에 나타난 색 값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S 1580-Y90R, S 5540-B80G, S 1560-R90B, S 3030-Y40R, S 7020-Y90R, S 0530-B40G, S 4550-R80B, S 9000-N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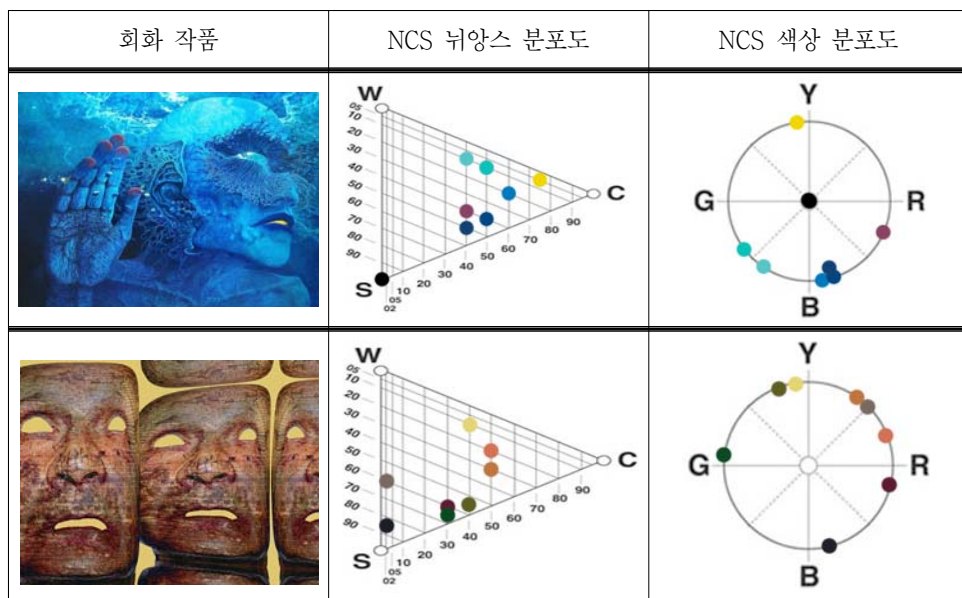
S 1580-Y90R은 명도와 채도가 아주 높으며 10%의 노란색(Y) 90%의 빨강색(R)인 색상 값이다. S 5540-B80G는 명도와 채도가 중간단계이며 80%의 녹색(G) 그리고 20%의 파랑색(B)인 색상 값이다. S 1560-R90B는 명도는 아주 높고 채도는 중간에서 약간 높은 10%의 빨강색(R) 90%의 파랑색(B)인 색상 값이다. S 3030-Y40R은 명도는 높지만 채도는 낮으며 40%의 빨강색(R) 60%의 노란색(Y) 인 색상 값이다. S 7020-Y90R은 낮은 명도와 채도를 지닌 10%의 노란색(Y) 90%의 빨강색(R)인 색상 값이다. S 0530-B40G는

명도가 매우 높고 채도가 낮은 60%의 파랑색(B) 40%의 녹색(G)인 색상 값이다. S 4550-R80B는 명도와 채도가 중간단계이며 80%의 파랑색(B) 그리고 20%의 빨강색(R)인 색상 값이다. S 9000-N의 순수한 검정색을 사용하였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채도가 낮으며 서로 상반되는 색상들이 주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두 번째 그림인 'DG-2261 (1984)'에 나타난 색 값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S 1050-Y40R, S 1080-Y30R, S 2050-G10Y, S 0585-Y60R, S 8505-G80Y, S 2570-Y90R, S 5010-Y30R, S 6005-B80G로 나타났다.

S 1050-Y40R은 명도가 매우 높고 채도는 중간단계이며 40%의 빨강색(R) 60%의 노란색(Y)인 색상 값이다. S 1080-Y30R은 명도가 매우 높고 채도는 낮은 70%의 노란색(Y) 30%의 빨강색(R)인 색상 값이다. S 2050-G10Y는 명도는 매우 높고 채도는 중간단계이며 90%의 녹색(G) 10% 노란색(Y)인 색상 값이다. S 0585-Y60R은 명도와 채도가 매우 높은 40% 노란색(Y) 60% 빨강색(R)인 색상 값이다. S 8505-G80Y는 명도와 채도가 매우 낮은 80%의 노란색(Y) 그리고 20%의 녹색(G)인 색상 값이다. S 2570-Y90R은 명도와 채도가 높은 90%의 빨강색(R) 10%의 노란색(Y)인 색상 값이다. S 5010-Y30R은 명도가 중간단계이며 채도가 낮은 70%의 노란색(Y) 30%의 빨강색(R)인 색상 값이다. S 6005-B80G는 명도가 낮고 채도가 매우 낮은 80%의 녹색(G) 그리고 20%의 파랑색(B)인 색상 값이다. 이처럼 노란색의 값과 붉은 색의 값의 난색 계열이 대체적으로 분포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9> 즈지스와프 백진스키 회화 작품의 NCS 색채적 특성 분석 ②



<표 9>의 첫 번째 그림인 ‘DG-2443 (1978)’에 나타난 색 값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S 1050-B60G, S 2060-R90B, S 4040-R30B, S 0575-G90Y, S 4050-R80B, S 5040-R80B, S 1040 B40G, S 9000-N으로 나타났다.

S 9000-N의 순수한 검정색을 사용하였고 S 1050-B60G는 명도가 매우 높고 채도는 중간단계이며 60%의 녹색(G) 그리고 40%의 파랑색(B)인 색상 값이다. S 2060-R90B는 명도가 매우 높고 채도는 중간 단계에서 약간 높은 10%의 빨강색(R) 90%의 파랑색(B)인 색상 값이다. S 4040-R30B는 명도와 채도가 중간단계이고 70%의 빨강색(R) 30%의 파랑색(B)인 색상 값이다. S 0575-G90Y는 명도가 매우 높고 채도가 높은 10%의 녹색(G) 90%의 노란색(Y)인 색상 값이다. S 4050-R80B는 명도와 채도가 중간단계이며 80%의 파랑색(B) 그리고 20%의 빨강색(R)인 색상 값이다. S 5040-R80B는 명도와 채도가 중간단계이며 80%의 파랑색(B) 그리고 20%의 빨강색(R)인 색상 값이다. S 1040-B40G는 명도가 매우 높고 채도가 중간 단계이며 60%의 파랑색(B) 40%의 녹색(G)인 색상 값이다. 이처럼 파란색의 값과 같은 한색 계열에 대다수 분포가 되어 있음을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있다.

<표 9>의 두 번째 그림인 'DG-2632 (1996)'에 나타난 색 값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S 1040-G90Y, S 5540-G70Y, S 6030-R20B, S 6530-G10Y, S 6005-Y50R, S 3050-Y40R, S 8505-R80B, S 2050-Y70R로 나타났다.

S 1040-G90Y는 명도가 매우 높고 채도는 중간 단계이며 10%의 녹색(G) 90%의 노란색(Y)인 색상 값이다. S 5540-G70Y는 명도와 채도가 중간단계를 지닌 30%의 녹색(G) 70%의 노란색(Y)인 색상 값이다. S 6030-G10Y는 명도가 중간단계에서 약간 낮고 채도가 낮은 90%의 녹색(G) 10%의 노란색(Y)인 색상 값이다. S 6005-Y50R은 명도가 중간단계이며 채도가 매우 낮은 50% 노란색(Y) 50%의 빨강색(R)인 색상 값이다. S 3050-Y40R은 명도가 높고 채도가 중간단계를 지닌 40% 빨강색(R) 60%의 노란색(Y)인 색상 값이다. S 8505-R80B는 명도와 채도가 매우 낮은 20%의 빨강색(R) 그리고 80% 파랑색(B)인 색상 값이다. S 2050-Y70R은 명도가 매우 높고 채도가 중간단계를 지닌 70%의 빨강색(R) 30% 노란색(Y)인 색상 값이다. 이처럼 주조색인 노란색과 유사한 갈색, 빨강색, 주황색의 색상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미지 스케일을 통한 색채적, 배색 특성 분석과 NCS 색채계를 이용한 색채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즈지스와프 백진스키 작품에 나타난 색상은 명도가 높고 채도가 낮은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주조색이 바탕색을 기준으로 한 색상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려진 대상이 바탕색과 유사한 색상과 채도가 낮은 색상을 사용하여 안정적이고 몽환적인 색상 톤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색채적 특성 분석은 즈지스와프 백진스키 회화에 조형적 특성을 분석하여 아트 메이크업과 네일아트 디자인을 응용함에 있어 색상 배색에 도움을 줄 것이다.

IV. 즈지스와프 백진스키 작품의 조형적 특성 분석을 통한 아트 메이크업 및 네일아트 디자인 제안

4.1 작품 의도 및 제작 방법

본 연구에서는 초현실적인 환시 미술의 발전을 이룬 즈지스와프 백진스키의 작품을 고찰하고 회화에서 나타난 형태와 색채를 분석하여 재구성한 아트 메이크업과 네일아트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백진스키의 회화에서 보여 지는 조형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모티브를 분석하고 조형 요소를 더하여 재구성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 회화 작품 제작 시 백진스키 작품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이미지 스케일과 NCS를 이용하여 색채를 분석하였고 주로 사용한 제작 방법은 실생활에서 쉽게 찾고 얻을 수 있는 재료들과 오브제를 이용하여 페이스페인팅과 바디 페인팅, 네일아트 기법을 함께 접목시킨 아트 기법을 사용하였다. 아트 메이크업 재료는 슈프라 페인팅 칼라, 아쿠아 페인팅 칼라, 메이크업 새도우, 글리터(Glitter), 스톤(Stone) 등을 사용하였고 네일아트 재료는 아크릴 물감(Acrylic), 네일 폴리쉬(Nail polish), 스톤, 글리터, 글루 등을 사용하여 디자인하였다.

4.1.1 아트 메이크업 (Art make-up)

작가의 의도에 의하여 주제와 소재가 선정되고 창작 되어지는 예술 중 하나로 아트(Art)와 메이크업(Make up)의 합성어로 독특한 이미지를 인체에 표현하는 조형 예술의 분야이다. 주제나 재료에 구애 받지 않으며 오브제를 활용하고 헤어 디자인과 의상 연출을 통한 전체적인 코디네이션(coordination)이 필요하다. 모든 요소의 조화를 고려하여 작품 제작 시 제작자의 의도를 얼굴이나 신체 위에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여 메시지를 전달하여야 한다.

아트 메이크업은 크게 페이스페인팅, 바디 페인팅으로 나누어진다. 페이스페

인팅은 주제에 맞게 사람의 얼굴에 페인팅 하는 과정으로 뷰티 메이크업 시 사용되는 기본 재료와 아쿠아 물감, 슈프라 물감, 리퀴드 파운데이션, 섀도우, 스톤, 에어브러쉬 등과 헤어 디자인을 함께 접목시켜 표현이 가능하다. 페이스페인팅은 판타지 메이크업이라고도 불리는데 상체부위에 꽃, 새, 도형 등을 이미지화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일반 뷰티 메이크업보다는 더 강한 느낌을 준다. 행사나 각종 파티에서 응용되어지며 의상과 함께 조화시켜 디자인한다. 바디 페인팅은 이미 오래전부터 생활사에 등장 하였으며 인간이 생존의 목적으로도 활용하였다. 몸 전체에 물감을 묻혀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인간의 생각 전달의 한계를 몸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해준다. 단순히 그림을 그린다는 개념이 아닌 무엇을 전달하고 표현할 것인지 알아야한다.

4.1.2 네일아트 (Nail 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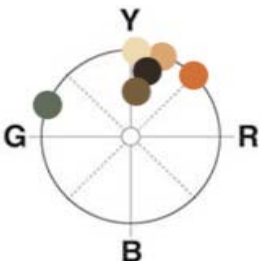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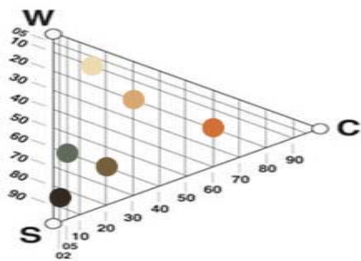
손, 발톱 위에 행해지는 화장으로 그 안에 창조적인 그림을 그리고 보석이나 장식을 달 수 있다. 5000년 전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신분을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 되었으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세기 초 부터이다.

아트 기법에는 인조 큐빅이나 스와로브스키 소재의 크리스탈, 다이아몬드를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스톤으로 디자인하는 스톤 아트 기법, 두 가지 이상의 색을 섞어 뽀족한 편을 이용해 모양을 디자인 하는 마블링 기법, 물감을 이용하여 붓으로 그림이나 꽃을 그리는 포크 아트 기법, 이미 완성된 제품을 사용하여 손톱 위에 붙여 디자인하는 워터 데칼 기법 등이 있으며 현재 네일 살롱에서는 지속력이 오래 유지되는 젤 네일 기법이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다.

4.2 즈지스와프 백진스키의 작품 분석을 통한 디자인 제안

4.2.1 아트 메이크업 디자인 제안

<표 10> 연구 작품 분석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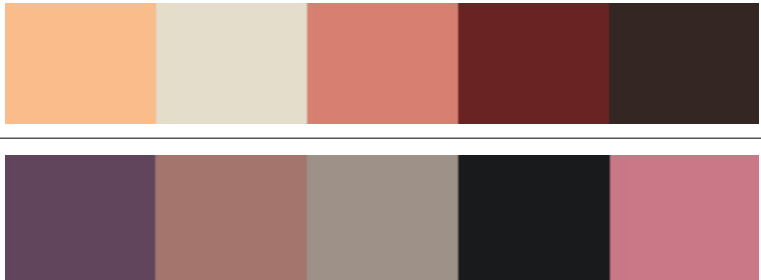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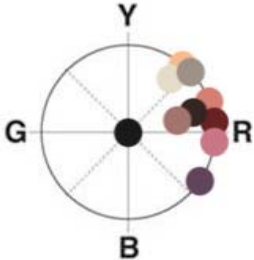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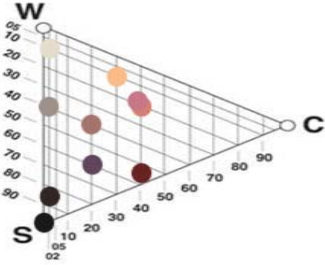
작품명	
DG-2263 (1982)	
모티브	 전체적인 형태와 색채를 모티브로 함
색채분석	 ● S 2060-Y50R ● S 2030-Y30 ● S 1015-Y10H ● S 8505-Y20R ● S 6020-Y10R ● S 6010-G30Y
NCS 색상 분포도 NCS 뉘앙스 분포도	
 	

연구 작품 DG-2263(1982)<표 10>은 백진스키의 80년대 특징이 드러나는 얼굴을 부각시키는 초상화 형태의 작품 중 하나이다. 인간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얼굴이 그려지지 않았으며 몽환적인 색채를 사용하여 한층 더 괴기스럽고 음산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전체적인 인물 형태의 구도와 색채를 모티브로 하여 디자인 작품인 'Re-born'<표 11>에 색채 시안을 제시하고 응용 모티브를 디자인 하였다.

작품의 명제인 Re-born은 '다시 태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의 형태를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골격 모양의 분장을 하여 분위기를 더 어둡게 조정하였다. 연구 작품에 나와 있는 인간의 형태를 여성으로 해석하였으며 회화를 입체감 있게 실제 모습으로 드러내고자 하였으며 그 의도를 반영하여 실제 모델에게 직접 디자인하였다. 백진스키 특유의 회화 특징 중 하나인 잔상 효과를 더하여 몽환적인 느낌을 살리고자 하였으며 그 효과를 보기 위해 촬영 시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조절하여 잔상 효과를 만들어내었다. 분장 시 흰색과 검은색 파운데이션을 이용하여 해골 분장을 하였고 목과 귀까지 디테일을 주어 현실감을 더하였다. 모델에게 검은색 의상과 그 위에 하얀 천을 두른 후 레이스를 이용하여 목장식을 만들어 코디네이션 하였다. 본 연구자의 작품을 응용하여 <그림 37>와 같이 본래의 모습을 추상하고자 눈, 코, 입의 형태가 드러난 인간의 모습을 함께 합성하여 두 번째 응용 작품을 연출하였다.

색상은 <표 11>과 같이 나타났으며 작품에 사용된 NCS 색상은 본 작품과 응용작품을 함께 토대로 배열하였다. 순서대로 S 1030-Y40R, S 1005-Y10R, S 2040-Y80R, S 5540-Y90R, S 8505-Y80R, S 6020-R40B, S 4020-Y80R, S 4005-Y50R, S 9000-N, S 2040-R10B이다. 이 작품은 회화의 전체적인 구도의 형태와 색채 분석을 근거로 하여 제작하였다.

<표 11> 디자인 작품 ① Re-born

디자인 제안		
작품설명	인간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미처 가지지 못한 내면을 보여주기 위하여 완전한 눈, 코, 입 대신 크림 파운데이션과 슈프라 칼라를 사용하여 골격을 그려 넣어 원래 작품의 의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연출하였다.	
색채분석		
NCS 색상 분포도		NCS 뉘앙스 분포도
		



<그림 37> Re-born
연구자 작품



<그림 38> Re-born 응용작
연구자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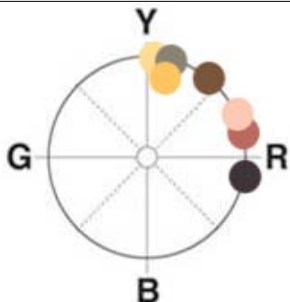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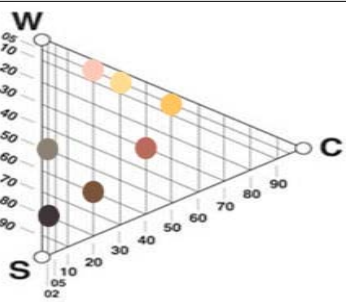


<그림 39> Re-born 응용작 세부사진 ①



<그림 40> Re-born 응용작 세부사진 ②

<표 12> 연구 작품 분석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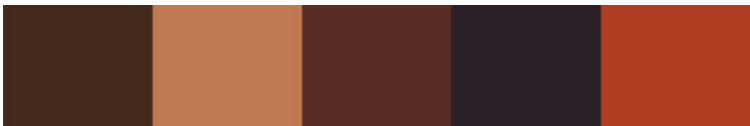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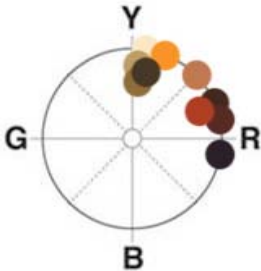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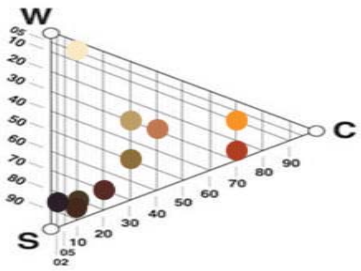
작품명	DG-3427		
모티브			
색채분석	 		
NCS 색상 분포도			
NCS 뉘앙스 분포도			

연구 작품 DG-3427<표 12>의 작품은 괴기스러운 장면을 연출하는 반면 난색 계열의 톤이 들어간 색상을 사용하여 분위기와는 정반대되는 느낌을 준다. 인체의 팔과 다리 대신 돌아있는 뾰족한 가시의 형태를 모티브로 디자인 작품인 ‘올가미’<표 13>을 연출했다.

본 연구자는 DG-3427 작품을 인간의 내면에 돌아있는 상처가 커져 몸 밖으로 표출되었다 해석하였고 누구나 상처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 가시들이 인체를 움아매고 있는 느낌을 연출하기 위하여 모델 얼굴 전체와 목과 손 위에 검은색 파운데이션을 이용하여 베이스를 깔고 펄이 들어간 블랙 파우더를 이용하여 피부를 매끄럽게 보이도록 하였다. 사포를 작고 다양한 크기로 잘라낸 다음 둥글게 말아서 원뿔 형태의 가시를 만들었다. 피부에 무해하지 않게 속눈썹 풀을 사포에 발라서 얼굴 위에 고정시켰다. 사진의 배경과 모델의 의상은 모두 검은색으로 통일하였다. 모델의 헤어는 가시처럼 보일 수 있도록 헤어 젤을 이용하여 뾰족하게 연출하였다.

또한 즈지스와프 백진스키의 90년대 작품에 영감을 받아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두 가지의 응용 작품을 함께 구성하여 합성 기법을 이용 하였다. 색상은 <표 13>과 같이 나타났으며 작품에 사용된 NCS 색상은 순서대로 S 0510-Y20R, S 1070-Y30R, S 3030-Y10R, S 5030-Y10R, S 8010-Y10R, S 8010-Y70R, S 3040-Y50R, S 7020-Y80R, S 8505-R20B, S2570-Y70R 이다.

<표 13> 디자인 작품 ② 올가미

디자인 제안		
작품설명	내면의 상처가 외부로 빠져 나와 인간을 옴아매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블랙 파운데이션과 블랙 파우더를 이용하여 피부 표현을 하고 사포를 이용하여 가시를 만들어 연출하였다.	
색채분석	 	
NCS 색상 분포도		NCS 뉘앙스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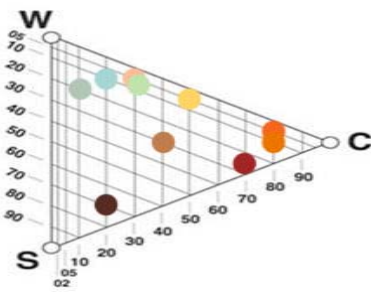


<그림 41> 올가미
연구자 작품



<그림 42> 컴퓨터 그래픽 합성을 이용한 율가미 응용작
연구자 작품

<표 14> 연구 작품 분석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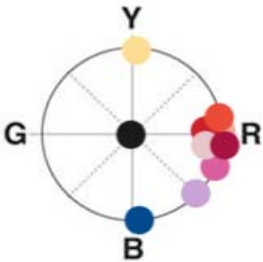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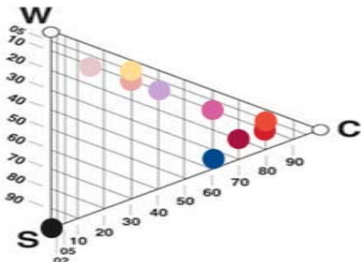
작품명	
DG-2532 (1987)	
모티브	 전체적인 형태를 모티브로 함
색채분석	 S 0530-Y60R S 0580-Y60I S 0550-Y10 S 7020-Y80R S 1080-Y40R S 2010-G10' S 2570-Y90 S 3040-Y40R
NCS 색상 분포도	NCS 뉘앙스 분포도
	

연구 작품 DG-2532(1987)<표 14>는 전체적으로 오렌지 계열의 난색 계열이 주를 이루며 여러 명의 인간이 엉켜있는 형태를 하고 있다. 각기 다른 기괴한 형태의 인간들이 복잡하게 뺨여있는 줄기에 뒤엉켜있으며 그 줄기가 뼈마디의 모양을 하고 있다. 회화 전체에 나타난 커다란 인간 무리의 형상을 꽃으로 해석하였으며 형상을 모티브로 하여 디자인 작품인 ‘트와일라잇 (twilight)’을 연출하였다.

꽃을 중심으로 하여 작품을 제작하였고 황혼이라는 뜻을 가진 트와일라잇을 작품 명제로 정하였다. 캔버스 위에 글루건을 이용하여 아트 마스크를 고정시켜준 후 그 위에 색상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흰색 아크릴 물감을 이용하여 베이스를 깔아주었다. 흰색 아크릴 물감이 마르고 난 후 피부색을 입히고 찢어진 모양의 가면을 그려넣었다. 가면의 색상은 흰색과 분홍색, 보라색 계열로 그라데이션 시켰으며 눈동자 색 또한 푸른 계열의 보라색을 사용하였다. 그 위에 풀을 발라주고 같은 계열 색상의 글리터를 얹어주었다. 입술 또한 핑크빛이 도는 브라운 계열의 색상을 만들어 칠하였고 그 위에 글리터를 얹었다. 배경은 글루건을 이용해 캔버스 위에 여러 모양과 다양한 색상의 꽃들을 접착시켰고 마스크가 꽃 사이에 파묻혀 있는 듯한 연출을 의도하였다.

색상은 <표 15>와 같이 나타났으며 작품에 사용된 NCS 색상은 순서대로 S 1030-Y90R, S 1080-Y90R, S 1060-R30B, S 0580-Y80R, S 1015-R10B, S 0530-Y10R, S 1040-R50B, S 2070-R10B, S 3560-R90B, S 9000-N이다.

<표 15> 디자인 작품 ③ 트와일라잇 (twilight)

디자인 제안		
작품설명	회화 전체에 나타난 커다란 인간 무리의 전체적인 형상을 꽃으로 해석하였으며 꽃을 중심으로 하여 황혼이라는 뜻을 가진 '트와일라잇(twilight)'이라는 명제를 붙였다.	
색채분석	 	
NCS 색상 분포도		NCS 뉘앙스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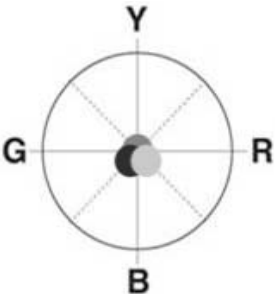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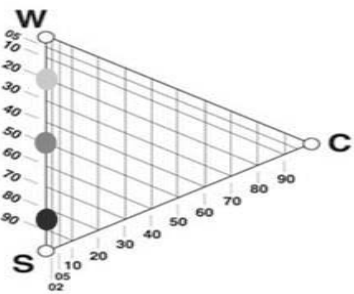
<그림 43> 트와일라잇 (twilight)

연구자 작품



<그림 44> 트와일라잇 세부사진
연구자 작품

<표 16> 연구 작품 분석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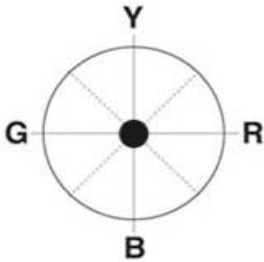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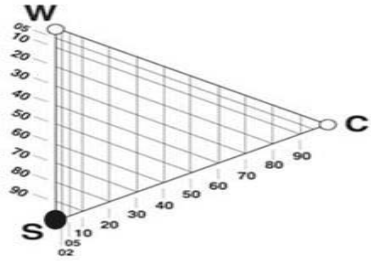
작품명		
DG-2824		
모티브		전체적인 형태와 색을 모티브로 함
색채분석		
	 5000-N S 8500-N S 2000-N	
NCS 색상 분포도		NCS 뉘앙스 분포도
		

연구 작품 DG-2824<표 16>은 드로잉 잉크를 사용하여 그려진 작품으로 검은색과 흰색 두 가지 색상만을 사용하여 그려졌다. 인간의 형상 위에 기괴하게 많은 눈들이 각기 다른 형태로 그려져 있고 얇은 선들이 섬세하게 표현되었다. 나뉜 면적이 골격을 정확하게 나타내주고 있으며 그 면적을 정교하게 채워 밸런스를 맞추었다.

디자인 작품인 ‘하이브리드(hybrid)’는 연구 작품 DG-2824의 전체적인 형태와 색상을 모티브로 하여 제작하였으며 작품 제작 시 사용된 재료로는 아트 마스크, 캔버스, 마카, 볼펜이다. 캔버스 위에 배경을 먼저 그려 넣었는데 연필로 밑그림을 열게 그려준 후 그 위에 얇은 볼펜으로 선을 선명하게 그려주었다. 얇게 그린 선을 두꺼운 마카를 이용하여 면적을 채워 선명함을 더했으며 가운데에 아트 마스크를 부착시켜 배경과 선이 이어지도록 그림을 그렸다. 톱니바퀴, 기계, 나뭇잎과 같이 복잡하게 얹힌 선들을 사용하여 캔버스 전체를 채워 넣었으며 정교한 무늬를 가진 형태를 함께 어울려 연출하였다.

색상은 <표 17>과 같이 나타났으며 작품에 사용된 NCS 색상은 순서대로 S 0500-N , S 9000-N이다.

<표 17> 디자인 작품 ④ 하이브리드 (hybrid)

디자인 제안	
작품설명	연구 작품의 전체적인 형태와 색상을 모티브로 하여 기계처럼 복잡하게 얽힌 선을 볼펜과 마카를 이용하여 정교하게 연출하였다.
색채분석	
	
NCS 색상 분포도	NCS 뉘앙스 분포도
	



<그림 45> 하이브리드 (hybrid)

연구자 작품



<그림 46> 하이브리드 세부사진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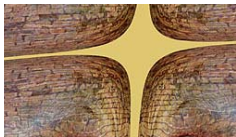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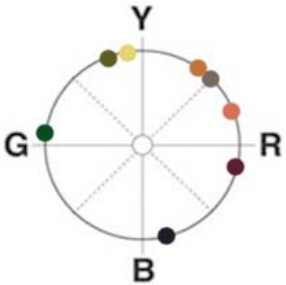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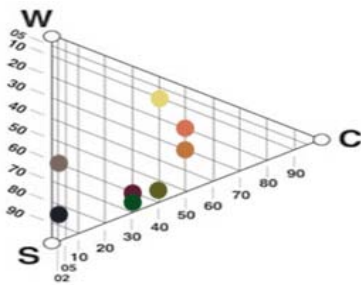


<그림 47> 하이브리드 세부사진 ②



<그림 48> 하이브리드 세부사진 ③

<표 18> 연구 작품 분석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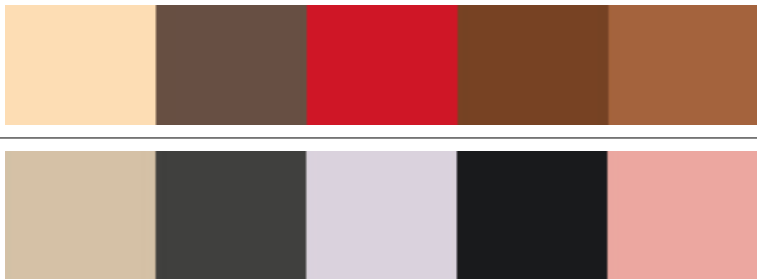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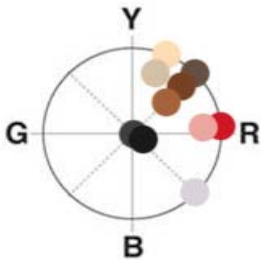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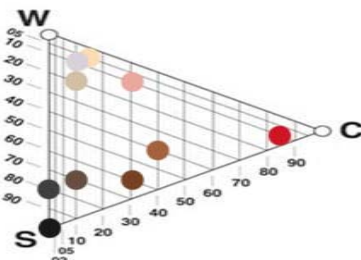
작품명			
DG-2632 (1996-1997)			
모티브			
색채분석	  S 2050-Y70R  S 5540-G70'  S 6030-R20'  S 1040-G90Y  S 3050-Y40R  S 8505-R80I  S 6530-G10'  S 6005-Y50R		
NCS 색상 분포도		NCS 뉘앙스 분포도	
			

연구 작품 DG-2632(1996-1997)<표 18>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루어진 작품으로 선의 형태가 분명하고 길게 늘어진 문양들이 나타난다. 돌 재질과 뱀의 비늘과 같은 표면 효과를 주었으며 평면적인 배경 위에 사람의 얼굴 형태를 입체감 있게 표현하였다. 작품의 색상은 붉은색과 노란색 계열의 통일감 있는 색상을 사용하였다.

작품 속 배경에 크게 나타나있는 곡선 형태를 모티브로 하여 디자인 작품인 ‘블랙홀(the black hole)’을 완성하였다. 모델의 얼굴 위에 전체적으로 파운데이션을 베이스로 깔아준 다음 흰색 펜슬 라이너로 스케치를 하였다. 그 위에 브라운 계열의 색도로 바탕색을 깔아준 뒤 점점 짙은 색을 위에 덮어 칠해주며 그라데이션 시켰다. 선명한 라인 표현을 위해 젤 타입의 아이라이너로 윤곽선을 확실하게 잡아주었고 목과 얼굴의 경계선을 확실하게 나눠주었다. 입체감을 표현하기 위해 흰색 하이라이트를 주고 그 위에 흰색 펄을 칠해주었다. 눈썹은 반대편 얼굴 부분에만 그렸으며 두 개의 얼굴이 겹쳐져 있는 듯한 착시 효과를 주기 위해 모델의 얼굴 각도를 설정하였다. 디자인 작품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응용하여 다른 두 가지의 작품을 같이 제안하였다.

색상은 <표 19>와 같이 나타났으며 작품에 사용된 NCS 색상은 순서대로 S 0515-Y30R, S 7010-Y50R, S 1085-Y90R, S 6030-Y50R, S 4040-Y50R, S 2010-Y30R, S 8000-N, S 1010-R50B, S 9000-N, S 1030-Y90R 이다.

<표 19> 디자인 작품 ⑤ 블랙홀 (the black hole)

디자인 제안	
작품설명	곡선의 형태를 모티브로 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나타나있는 원형 형태의 홀을 그렸으며 입체감을 살릴 수 있게 하이라이트를 주고 그라데이션 기법을 사용하였다.
색채분석	
NCS 색상 분포도	
	
NCS 뉘앙스 분포도	
	



<그림 49> 블랙홀 (the black hole)
연구자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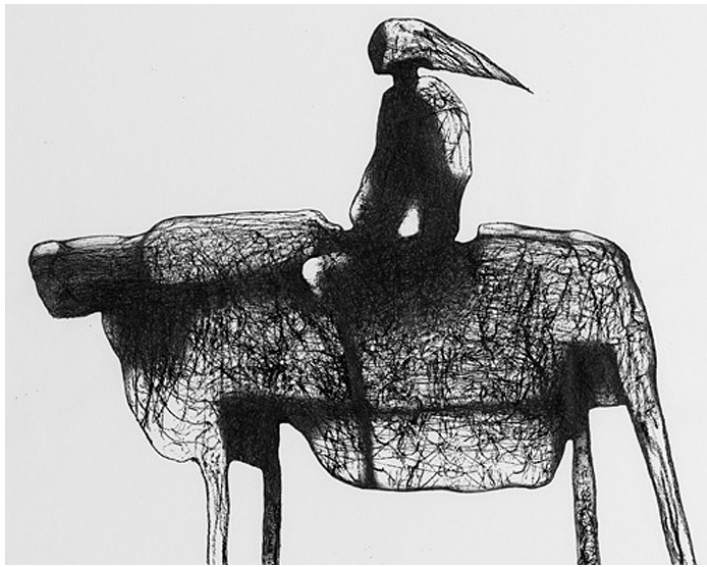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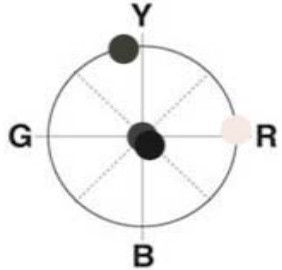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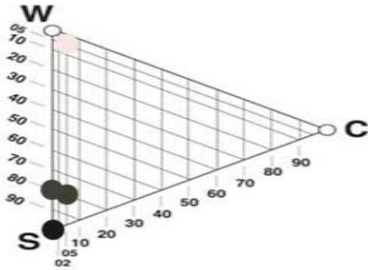
<그림 50> 컴퓨터 그래픽 합성을 이용한 블랙홀 응용작 ①
연구자 작품



<그림 51> 컴퓨터 그래픽 합성을 이용한 블랙홀 응용작 ②
연구자 작품

4.2.2 네일아트 디자인 제안

<표 20> 연구 작품 분석 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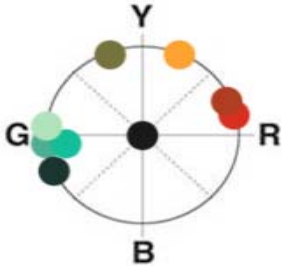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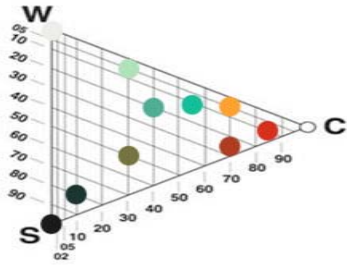
작품명			
DG-3064 (2001-2002)			
모티브			
색채분석			
			
NCS 색상 분포도		NCS 뉘앙스 분포도	
			

연구 작품 DG-3064(2001-2002)<표 20>은 매우 얇은 분홍색을 띄는 색과 무채색으로 함께 만들어진 작품이다. 펜을 이용하여 그린 듯 보이지만 그 래픽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다. 정확한 형태 안에 어지럽게 엉켜져있는 선들이 그려져 있으며 소나 말 같은 커다란 동물 위에 사람이 타있는 형태를 하고 있다.

연구 작품 DG-3064에 나와 있는 사람의 머리 형태인 빨 모양을 모티브로 하여 디자인한 작품인 ‘해피 할로윈(happy halloween)’을 완성하였다. 작품 제작 시 사용된 재료로는 작품용 롱 팁과 아크릴 물감, 네일 폴리쉬, 스톤, 네일 브러쉬이다. 작품용 롱 팁 위에 베이스 코트를 바른 뒤 그 위에 각각의 배경 색상을 칠해주었다. <표 21>에 나와 있는 사진의 순서대로 첫 번째 롱 팁에는 핑크가 들어간 빨간색의 네일 폴리쉬를 배경 색상으로 칠해준 후 브러쉬를 이용하여 흰색 아크릴 물감으로 선을 그려주었다. 그 다음 파란색과 검은색 아크릴 물감으로 눈을 그려준 후 은색 스톤을 붙여주었다. 두 번째 롱 팁에는 검은색 네일 폴리쉬를 배경으로 칠해준 후 흰색 아크릴 물감으로 해골 모양의 그림을 그려주고 그 위에 핑크 네일 폴리쉬를 칠해주었다. 세 번째 롱 팁은 검은색 네일 폴리쉬를 배경으로 칠해준 후 빨간색 아크릴 물감으로 입술을 그리고 그 위에 같은 색상의 스톤을 모양대로 붙여주었다. 그 다음 흰색 아크릴 물감으로 모티브가 된 빨을 이로 표현하여 그려주었다. 네 번째 롱 팁에는 흰색 아크릴 물감으로 거미줄을 표현하였으며 가운데에 스톤을 붙여 마무리 하였다. 다섯 번째 롱 팁에는 빨간색 배경위에 모티브가 된 빨을 그렸으며 세 번째 롱 팁과는 다른 형태의 이로 표현하였다. 모티브로 가져온 빨의 형태를 사람의 이로 표현하였으며 다섯 개의 롱 팁 위에 각각 다른 형태지만 같은 분위기의 작품을 연출하였다.

색상은 <표 21>과 같이 나타났으며 작품에 사용된 NCS 색상은 순서대로 S 1085-Y80R, S 9000N, S 2040-B90G, S 8010-B70G, S 0500-N, S 2570-Y70R, S 1055-B90G, S 5030-G70Y, S 0530-G10Y, S 0570-Y30R이다.

<표 21> 디자인 작품 ⑥ 해피 할로윈 (happy halloween)

디자인 제안		
작품설명	뿔죽한 빨의 형태의 모티브를 사람의 이로 연상시켜 표현하였으며 네일 폴리쉬와 아크릴 물감, 스톤을 이용하여 작품을 연출했다.	
색채분석		
		
NCS 색상 분포도		NCS 뉘앙스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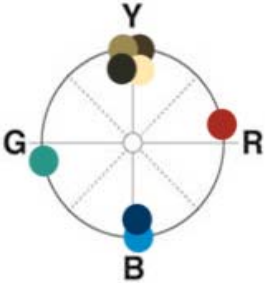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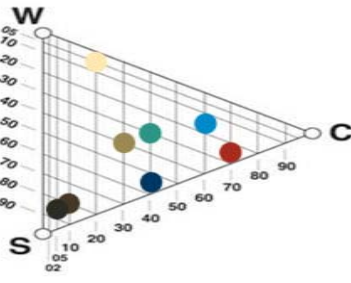
<그림 52> 해피 할로윈 (happy halloween)

연구자 작품



<그림 53> 해피 할로윈 세부사진

<표 22> 연구 작품 분석 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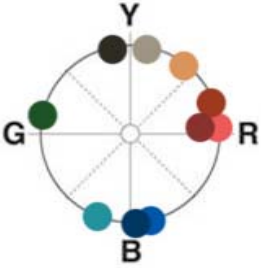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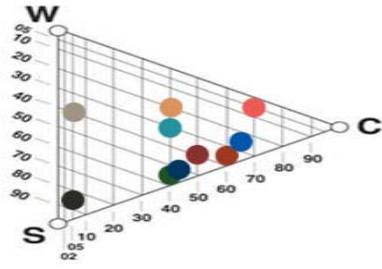
작품명	
DG-2454 (1975)	
모티브	 전체적인 형태와 색채를 모티브로 함
색채분석	  S 1560-R90E  S 3040-B80C  S 2570-Y8C  S 8010-Y10R  S 4030-G90'  S 0520-Y10C  S 5540-R9C  S 8505-G80Y
NCS 색상 분포도	NCS 뉘앙스 분포도
	

연구 작품 DG-2454(1975)<표 22>는 거대한 여성이 햇불을 들고 바다 위를 걸어가는 형태를 하고 있으며 커다란 까마귀의 형상이 웅장함과 음산한 분위기를 한층 더 연출한다. 갈색 계열의 색상 위주로 포인트가 되며 여러 색이 작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각자의 색을 잘 살려준다.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기괴한 요소들이 곳곳에 그려져 있으며 어지럽게 뒤엉킨 실타래 같은 선들을 찾아볼 수 있다.

연구 작품 DG-2454의 전체적인 형태와 색채를 모티브로 하여 디자인한 작품인 ‘마스(Mars)’를 완성하였다. 작품 제작 시 사용된 재료로는 작품용 롱 팁과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얹혀있는 레이스 천, 아크릴 물감, 네일 폴리쉬, 여러 형태의 스톤, 네일 브러쉬, 파츠 글루이다. 제작 과정은 작품용 롱 팁 위에 퍼프를 이용하여 붉은색 계열의 아크릴 물감을 고르지 않게 찍어주었다. 그 위에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얹혀있는 모양의 붉은 천을 팁 모양에 맞춰 잘라 붙여 고정시켰다. 총 여섯 개의 작품용 팁을 사용하였는데 각각 다른 형태의 디자인으로 스톤을 배열하였다. 모티브 작품에 나와 있는 색상에 맞추어 스톤을 선택하였고 회화에 나와 있는 햇불에서 영감을 받아 불의 행성이라 불리는 화성의 이름을 가져와 작품 제목을 ‘마스’라고 하였다.

색상은 <표 23>과 같이 나타났으며 작품에 사용된 NCS 색상은 순서대로 S 1085-Y80R, S 9000N, S 2040-B90G, S 8010-B70G, S 0500-N, S 2570-Y70R, S 1055-B90G, S 5030-G70Y, S 0530-G10Y, S 0570-Y30R이다.

<표 23> 디자인 작품 ⑦ 마스 (Mars)

디자인 제안		
작품설명	연구 작품의 전체적인 형태와 색을 모티브로 하여 실처럼 얹혀있는 선의 형태를 배경으로 넓게 표현하고 각각 다른 형태의 스톤을 사용하여 디자인 하였다.	
색채분석		
		
NCS 색상 분포도		NCS 뉘앙스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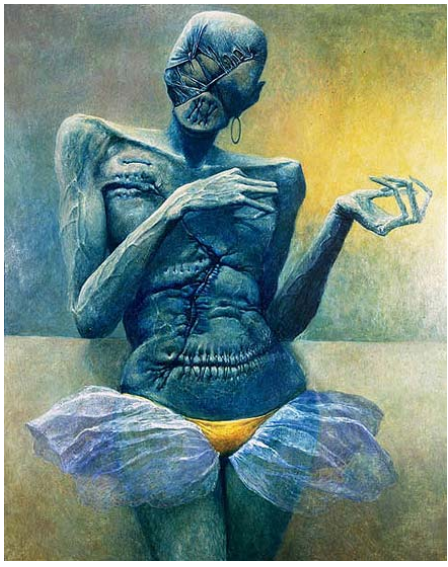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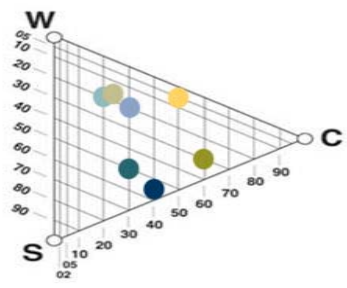


<그림 54> 마스 (Mars)
연구자 작품



<그림 55> 마스 세부사진

<표 24> 연구 작품 분석 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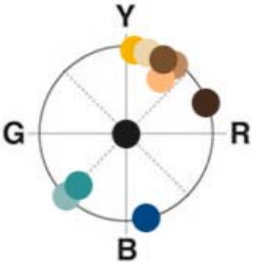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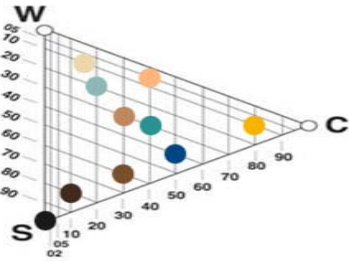
작품명	
DG-3397 (1969)	
모티브	색채를 모티브로 함
색채분석	 S 5030-B30C S 2020-B40 S 5540-R9C S 3060-G70Y S 0550-Y10I S 2020-G8C S 2030-R80B
NCS 색상 분포도	NCS 뉘앙스 분포도
	

연구 작품 DG-3397(1969)<표 24>는 성별이 분명하지 않은 인간에게 에로티시즘을 개입시켜 만든 작품으로 남성과 여성의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에로티시즘은 1970년대부터 백진스키 회화에서 드러난 특징 중 하나로 인간의 나체를 비현실적으로 표현하고 성적인 작품을 뜻한다. DG-3397에 나와 있는 인간은 어깨 등 신체 골격을 보았을 때 남성의 골격을 하고 있으나 손의 제스처(gesture)가 여성의 동작처럼 섬세하고 하반신에 치마와 같은 의상을 두르고 있어 두 성별이 합쳐져 있다고 보여 진다. 작품에 사용 된 색상은 주로 초록빛이 도는 파란색과 노란색 계열의 색상을 사용하였다.

연구 작품 DG-3397에 나타난 색채를 모티브로 하여 ‘노을 지는 해변’이라는 디자인 작품을 완성하였다. 작품 제작 시 사용된 재료로는 작품용 롱 팁, 네일 폴리쉬, 아크릴 물감, 네일 라인 스티커, 스톤, 파츠 글루를 사용하였다. 연구 작품의 색채와 동일하게 파랑색과 노란색 두 가지 색상을 사용하였고 검은색 라인을 더하여 선명도를 높였다. 노란색의 색상은 노을에 물들어 금빛으로 빛나는 모래사장을 의미하며 파랑색은 해변을 의미하여 ‘노을 지는 해변’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다섯 개의 팁마다 다른 디자인을 도안 하여 다양함을 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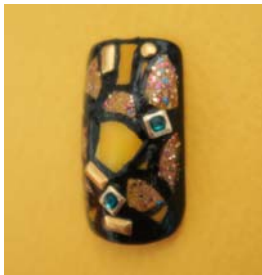
색상은 <표 25>와 같이 나타났으며 작품에 사용된 NCS 색상은 순서대로 S 1080-Y10R, S 1015-Y20R, S 3030-Y40R, S 8010-Y70R, S 2020-B50G, S 3040-B50G, S 4050-R80B, S 0540-Y40R, S 6030-Y30R, S 9000-N이다.

<표 25> 디자인 작품 ⑧ 노을 지는 해변

디자인 제안			
작품설명	연구 작품의 색채를 모티브로 하여 초록빛이 도는 파랑색과 노란색을 사용하여 노을에 빛나는 금빛 모래사장과 해변을 표현하였다. 이외에 검은색을 이용하여 디자인 모양의 선명도를 높였다.		
색채분석			
NCS 색상 분포도		NCS 뉘앙스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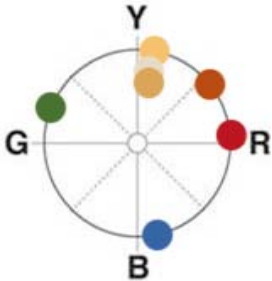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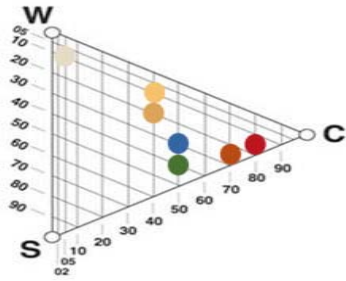


<그림 56> 노을 지는 해변
연구자 작품



<그림 57> 노을 지는 해변 세부사진

<표 26> 연구 작품 분석 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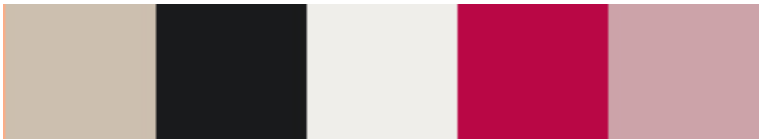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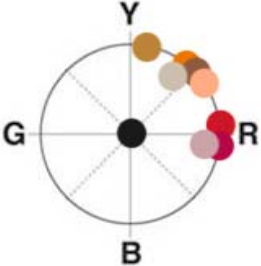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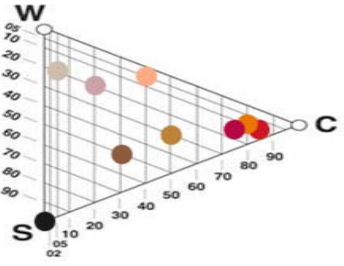
작품명		
DG-2642 (1996-1997)		
모티브		전체적인 형태를 모티브로 함
색채분석	 S 1580-Y90F S 2570-Y60 S 1040-Y20 S 1005-Y20R S 2040-Y20F S 4050-G3C S 3050-R80B	
NCS 색상 분포도		NCS 뉘앙스 분포도
		

연구 작품 DG-2642(1996-1997)<표 26>은 1990년대 후반에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이용하여 만든 작품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몽환적인 분위기를 벗어났다. 채도가 분명하고 강렬한 색채들이 주로 사용되었고 잔상처럼 어지럽게 얹혀있는 선 대신 일정하게 그려진 선을 선택하였다.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눈, 코, 입이 분명하지 않고 윤곽만 나타나있다.

<표 27>에 나타난 디자인 작품인 ‘붉은 나비’는 연구 작품의 전체적인 형태를 모티브로 하여 제작하였다. 본 연구자는 회화에 드러나 있는 형태를 나비로 재해석 하였으며 작품 제작 시 사용된 재료로는 작품용 룡 팁, 아크릴 물감, 네일 폴리쉬, 스톤, 네일 브러쉬, 파츠 글루, 인조 꽃, 인조 나비이다. 첫 번째와 다섯 번째 룡 팁에는 나비의 꼬리를 연상시키는 무늬를 그려 넣어 흰색과 진한 분홍색, 검은색을 사용하여 디자인을 하였다. 두 번째와 네 번째 룡 팁에는 나비가 움직일 때 남는 동선의 잔상을 표현하였으며 붉은 계열의 색상들을 이용하여 디자인 하였다. 세 번째 룡 팁은 주제를 나타내는 디자인으로 인조 나비와 인조 꽃을 팁 위에 장식하였다. 선명한 붉은 계열의 색상을 위주로 사용하였으며 나비를 주제로 하여 ‘붉은 나비’라고 제목을 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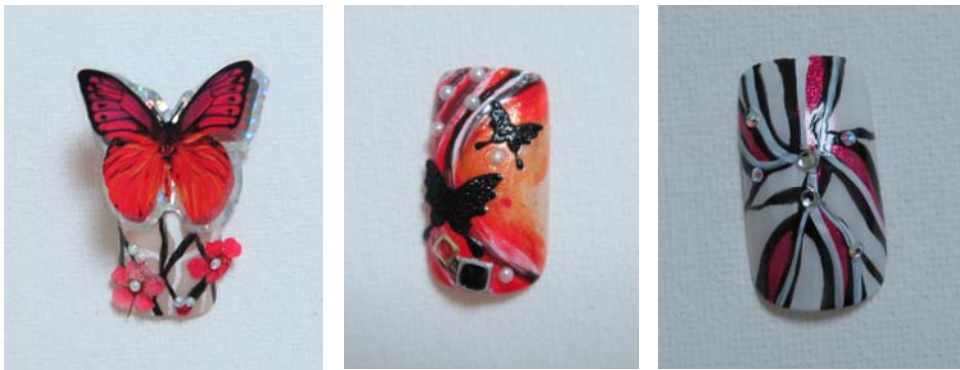
색상은 <표 27>과 같이 나타났으며 작품에 사용된 NCS 색상은 순서대로 S 1085-Y90R, S 1080-Y40R, S 3050-Y20R, S 5030-Y50R, S 0540-Y60R, S 2005-Y40R, S 9000-N, S 1575-R10B, S 2020-R10B이다.

<표 27> 디자인 작품 ⑨ 붉은 나비

디자인 제안	
작품설명	연구 작품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형태를 모티브로 하여 나비로 재해석 하였으며 붉은 계열의 색상을 위주로 사용하였고 나비의 움직임의 잔상과 꼬리를 함께 표현하였다.
색채분석	 
NCS 색상 분포도	NCS 뉘앙스 분포도
	



<그림 58> 붉은 나비
연구자 작품



<그림 59> 붉은 나비 세부사진

V. 결 론

즈지스와프 백진스키는 사진작가로서의 창작적인 합성 사진을 시작으로 몽환적인 색채를 이용하여 회화 작품을 완성시키고 21세기에 들어서 그래픽 작업으로 이르기까지 수많은 작품 활동을 했다. 초현실적이고 그로테스크한 형태를 특징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화풍의 작품들을 남겼으며 작품의 제목을 붙이지 않아 어떠한 설정이나 의미를 두지 않았고 이미지 자체에서 미적 표현을 추구하였다. 특정한 예술 활동에만 머무르지 않고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며 현대인들에게 초현실주의 작가로 자리 잡았으며 환시 미술의 거장이 되었다.

본 연구는 즈지스와프 백진스키의 생애와 시대적인 배경을 통하여 작품 세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작가의 회화적 특성을 살펴보고 회화에서 표현된 형태적 요소와 색채 기법 등을 모티브로 하여 아트 메이크업과 네일아트 디자인 작품을 제안하였다. 아트 메이크업과 네일아트 디자인을 작품으로 제작하는데 있어 이미지 스케일과 NCS, 조형적 형태의 특성을 통하여 즈지스와프 백진스키의 작품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하여 얻어진 모티브를 활용하여 9작품의 디자인을 제안하였으며 작품 제작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작품 I - 'Re-born'은 인간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미처 가지지 못한 내면을 보여주기 위하여 완전한 눈, 코, 입 대신 크림 파운데이션과 슈프라 칼라를 사용하여 골격을 그려 넣었다. 작품 제작 시 원래 작품의 의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연출하였다.

작품 II - '울가미'는 내면의 상처가 외부로 빠져 나와 인간을 울아매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블랙 파운데이션과 블랙 파우더를 이용하여 피부 표현을 하고 사포를 이용하여 가시를 만들어 연출하였다.

작품 III - '트와일라잇(twilight)'은 회화 전체에 나타난 커다란 인간 무리의 전체적인 형상을 꽃으로 해석하였으며 꽃을 중심으로 하여 황혼이라는 뜻을 가진 '트와일라잇(twilight)'이라는 명제를 붙였다.

작품 IV - ‘하이브리드(hybrid)’는 연구 작품의 전체적인 형태와 색상을 모티브로 하여 기계처럼 복잡하게 얽힌 선을 볼펜과 마카를 이용하여 정교하게 연출하였다.

작품 V - ‘블랙홀(the black hole)’은 곡선의 형태를 모티브로 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나타나있는 원형 형태의 홀을 그렸으며 입체감을 살릴 수 있게 하이라이트를 주고 그라데이션 기법을 사용하였다.

작품 VI - ‘해피 할로윈(Happy halloween)’은 뾰족한 뿔의 형태의 모티브를 사람의 이로 연상시켜 표현하였으며 네일 폴리쉬와 아크릴 물감, 스톤을 이용하여 작품을 연출했다.

작품 VII - ‘마스(Mars)’는 연구 작품의 전체적인 형태와 색을 모티브로 하여 실처럼 얽혀있는 선의 형태를 배경으로 넓게 표현하고 각각 다른 형태의 스톤을 사용하여 디자인 하였다.

작품 VIII - ‘노을 지는 해변’은 연구 작품의 색채를 모티브로 하여 초록빛이 도는 파랑색과 노란색을 사용하여 노을에 빛나는 금빛 모래사장과 해변을 표현하였다. 이외에 검은색을 이용하여 디자인 모양의 선명도를 높였다.

작품 IX - ‘붉은 나비’는 연구 작품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형태를 모티브로 하여 나비로 재해석 하였으며 붉은 계열의 색상을 위주로 사용하였고 나비의 움직임의 잔상과 꼬리를 함께 표현하였다.

작품 표현 방식인 아트 메이크업과 네일 아트는 신체 위에 자유롭게 표현하여 미적인 요소를 부각시키는 뷰티 디자인 요소인 배경, 의상, 모델, 재료와 함께 조화시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즈지스와프 백진스키의 회화 작품을 통해 당시 시대의 영향과 그가 추구하는 의미와 조형적 특성을 분석하였고 NCS 색채계를 이용하여 색채 분석을 하였다. 보는 이에게 시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재료들과 다양한 표현 기법, 사진 기법을 이용하여 작품을 연출하였다. 하나의 디자인으로 조형적, 색채적, 형태적인 방면에서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하였으

며 즈지스와프 백진스키 회화에 나타난 조형적 특징을 작품 디자인 모티브로 활용함으로써 아트 메이크업 및 네일아트 작품 제작에 있어 뷰티 아티스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료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즈지스와프 백진스키 작품을 중심으로 반 추상적인 스타일로 범위를 제한하여 작품을 제작하였으며 보는 이들이 작품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반면 작품마다 정확한 의미 부여가 정해지지 않았고 해석하고자 하는 의미의 범위가 넓어 공감 형성에 한계점을 갖는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 나타난 한계점을 보완하여 다양한 요소를 폭 넓게 활용하고 아트 메이크업과 네일 디자인의 개성적인 표현을 한층 더 나아가 발전시킬 수 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김남희. (2006). 『Base Make up (기초 메이크업)』. 아름다운 사람들.
- 권구정 외 5인. (2006). 『Makeup Icon』. 청구문화사.
- 송서현 외 2인. (2013). 『아트 메이크업 디자인 북』. 교문사.
- 이경민. (2000). 『이경민 뷰티 메이크업북』. 김영사.
- 신단주 외 3인. (2007). 『신단주의 바디아트와 캐릭터메이크업』.
크라운출판사.
- 박미정 외 4인. (2015). 『페이스 아트 (Face Art)』. 구민사.
- 여정순 외 2인. (2013). 『젤 네일아트의 모든 것 (185가지 화려한 젤 디자인,
기초편과 응용편)』. 고슴도치.
- 홍화정 외 2인. (2015). 『NCS기반 네일아트』. 구민사.
- 이서윤 외 3인. (2014). 『응용네일아트』. 광문각.
- 정동립, 권형선. (2015). 『색채표현과 패션』. 교학연구사.
- 안나현. (2015). 『미용색채 기초실습』. 구민사.
- 김영숙. (2014). 『내셔널 갤러리에서 꼭 봐야 할 그림 100』. 휴머니스트.

2. 국외문헌

- Zdzislaw Beksinski. (2013). 『Beksinski Malarstwo / Painting』. BOSZ.
- Zdzislaw Beksinski. (1998). 『The Fantastic Art of Beksinski』. Morpheus.
- A. et P. Domchowski. (1991). 『Beksinski : Peintures Et Dessins』. API.

3. 학위논문

- 최름쇠. (2014). 『데미안허스트의 작품을 활용한 그로테스크 아트 메이크업 제작』.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현진. (2014). 『크리스 쿡시 작품을 응용한 아트 메이크업의 그로테스크 표현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한명순. (2015). 『팀 버튼 영화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메이크업 특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명대학교 대학원.
- 차보미. (2013). 『인체의 선(Line)적 조형미를 표현한 장신구 디자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
- 김정희. (2006). 『색채가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대학원.
- 전정민. (2004). 『색채감성을 이용한 모션그래픽스 표현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정해량. (2006). 『네일아트의 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 박소희. (2015). 『빅토르 바자렐리 회화의 조형적 특성 분석을 통한 네일 디자인 제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대학원.
- 하정보. (2014). 『정크아트 표현기법을 활용한 네일아트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경대학교 대학원.
- 민수영. (2011).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한 바디페인팅 디자인 제작 기법』. 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대학원.
- 이슬비. (2015). 『뒤피·피카비아·폴케의 회화작품에 표현된 기법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응용한 네일 디자인 및 아트마스크 디자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대학원.

4. 기타 자료

즈지스와프 백진스키. 위키피디아

즈지스와프 백진스키. 두산백과

즈지스와프 백진스키 공식사이트. www.dmochowskigallery.net/

다크 뷰티 매거진 (Dark Beauty Mag). www.darkbeauty.com/

ABSTRACT

A Study on the Proposed Art Make-up & Nail Art Design through Analysis of Formative Features of Paintings by Artist Zdzislaw Beksinski

Hwang, Ryung-Kyung
Major in Make-up Art
Dept. of Beauty art & Design
Graduate School of Art
Hansung University

The beauty industry expanding its area while growing at a rapid rate throughout the overall art and culture has had its value recognized regardless of the era. The beauty-related study of the individual and new attempt has been conducted to satisfy the human's desire for the beauty. Particularly, the art make-up and the nail art grew as a field of plastic arts and they are being expanded to several fields including the performance and video.

Recently, many artists are producing new works by means of various techniques and motif in Korea and abroad, and they aim to conduct a diversified and subdivided work study. Especially they are studying new and artistic works by engrafting into the trend of art and making works by engrafting into the architecture, sculpture, video, and advertisement including paintings.

This thesis analyzed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works by Zdzislaw Beksinski, (1929–2005) who was called a masterpiece of visual hallucination art and a surrealism artist. Beksinski provided spectators with a chance to feel doubt and obscurity by the semi–abstract effect and left a number of works through various works in several fields. He acted in several fields such as the picture, sculpture, and graphic not the specific artistic activity and let spectators give a meaning rather than a fixed meaning to let them suggest different interpretations.

Therefore, this study considered Beksinski's lifetime and work world theoretically focusing on his painting works and suggested 5 art make–up s 4 nail art designs which applied and reinterpreted the morphological and color characteristics modernly which applied in his painting. As a result of study, the art make–up and nail art design works reinterpreted by the computer graphic were completed by interpreting the symbolic beauty the works had based on his aesthetic nature. Creative works were created by various elements and aesthetic value was added in producing the design. It is significant in suggesting the directivity by the beauty art design search.

It is hoped the formative feature is maximized as well as the pictorial art expression by understanding and applying the artist's pictorial characteristics in order to raise the artistic value, and an individual creation study will be performed escaping from the scope of fixed elements through this study.

【Keyword】 Zdzislaw Beksinski, Art make–up, Nail art deisgn, NCS, formative feature